

2017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차보고서

2017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ANNUAL REPORT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 CONTENTS

## 00

### 개요

- 04 발간사
- 06 연혁
- 08 중진공 비전 · 전략체계
- 09 중진공 주요 사업
- 10 경제 동향과 중소기업 동향
- 12 2017 HIGHLIGHT

## 01

###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 16 2017년 사업추진 방향 및 실적
- 18 기업진단
- 20 정책자금 융자 · 출자
- 43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
- 64 인력양성
- 78 기술지원 및 현장애로 해결

## 02

### 고객만족도 제고 및 경영효율성 강화

- 90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 91 조직 경영효율성 강화

## 03

###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 방향

## 04

### 부록

- 104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출자회사 현황
- 107 2017년 발간 간행물
- 108 2017년 주요 행사
- 109 조직도
- 110 운영위원 및 임원

발간사  
Message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2017년은 최저임금 인상안 가결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난 우려, 사드 갈등에 따른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 피해와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경제위기 요인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신정부의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및 강화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정책융자, 글로벌화·수출·마케팅, 인력양성, 기술건설·사업화 지원을 통해 내·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동력 확보와 자금으로 해소를 위해 일자리 추경을 포함한 4조 6,350억 원의 정책자금 융자예산을 전액 집행하여 대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연대보증 면제 확대 시행, 사회적 경제 기업 및 불공정행위 피해기업 지원 제도를 마련으로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교육장 '넥스트스퀘어'를 개소하여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교육기반을 마련하였고,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창업의 순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도록 청년 창업사관학교의 지원범위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출 순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 구축'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도 채택되었습니다.

2018년에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인 사람 중심 일자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대해 최전방에서 폭넓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우선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기업인력애로센터 확대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인력 유입 촉진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근로조건 변경 대응반을 운영하여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8대 혁신 산업 및 바이오·한류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혁신성장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독과점 산업을 경쟁생태계로 탈바꿈시키고 사회적 경제 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게 희망을, 벤처기업에게 날개를,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꿈을 주는 혁신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앞으로의 중진공의 행보에 중소기업 대표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이사장 이 / 

연혁  
Corporate  
History

중소기업과 함께  
더 큰 세상을 향합니다



1970~90

- 1979. 1.** 중소기업진흥공단 설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기금 설치('78.12)
- 1982. 10.** 중소기업연수원(안산) 개원  
지역연수원 개원 : 호남(2001.9),  
대구·경북(2003.11), 부산·경남(2004.10)
- 1985. 2.** 국내 지역본·지부 설치  
16개 지역본부, 15개 지부('13.2 현재)
- 1989. 9.**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수행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

1990~

- 1993. 7.**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구조개선사업 실시
- 1998. 7.** IMF 경제위기상황에 따른  
직접대출 전면실시
- 1998. 9.**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 BI 설치  
주요 11개국 17개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운영



## 2000~

- 2002. 3.**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산업기반기금 통합  
기금명칭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 2006. 9.**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 개소('07.4)
- 2008. 6.** 정책자금 용자 및 해외마케팅지원창구 단일화  
산업기반자금 및 국내수출지원업무 인수,  
4개 해외사무소 폐쇄
- 2009. 1.** 기금명칭 변경  
기금명칭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약칭 : 중진기금)」
- 2009. 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지정

## 2010~

- 2011. 3.** 청년창업사관학교 개교
- 2012. 1.** 청년창업센터 개소  
18개 지역본부에 운영(2014.12 현재)
- 2012. 12.** “금융형 준정부기관” 지정
- 2013. 12.** “해외유동망진출지원센터” 설치  
미국 뉴저지 1개소
- 2014. 7.** 본사 지방이전 완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 2014. 8.**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기금 설치(2014.1)
- 2014. 10.** 글로벌리더십 연수원 개원
- 2014. 11.** 카자흐스탄 글로벌 BI 개소
- 2015. 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력양성,  
컨설팅 사업 인수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기재부  
공운위 의결(2014.12.23)
- 2017. 3.** 기업인력애로센터 설치

중진공  
비전 ·  
전략체계

Mission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주역으로 육성

Vision

성장단계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Best Partner

경영목표

| 미래 성장유망기업 31,000개 사 육성 | 일자리 57만 개 창출  
 | 수출 400억 불 달성 | 고객만족도 S등급

전략목표

창업 생태계  
활성화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대고객 서비스  
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조직 구축

전략과제

01 창업 성공기반 확충	04 4차 산업혁명 경쟁력 확보	07 수요자 중심혁신 추구	10 공정하고 차별없는 조직 구현
02 글로벌 성장 가속화	05 혁신성장 통합솔루션 제공	08 개방형 협업 플랫폼 확대	11 사회적 편익을 위한 상생협력
03 재도전 인프라 확충	06 핵심인력확보 지원	09 정책지원 성과창출 강화	12 투명하고 청렴한 공공기관

중소기업의 꿈을  
성공의 꽃으로

중진공  
주요 사업

기업진단

진단을 통한  
기업맞춤연계 지원

기술컨설팅·사업화

중소기업 현장의 경영기술애로  
해소 및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 지원

정책자금 융자

미래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 융자  
지원



SBC 

인력양성

중소기업 인력 유입,  
양성, 장기 재직 유도

마케팅·글로벌화

수출 초보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 경제 동향과 중소기업 동향

2017년 국내경기는 전년 대비 3.1% 성장하였다. 이는 2014년 3.3% 이후 3년 만에 최고치이다. 최종 소비는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고정투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모두 증가하여 전년 대비 8.6% 늘어났다. 수출은 반도체 수요 증가 및, 석유제품 기계류 수출도 신흥국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에 힘입어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다. 수입은 설비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자본재가 수입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7.0% 늘어났다.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9% 상승하였다.

취업자 수는 정부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32만 명 늘었고, 고용률이 상승한 반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2016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 국내 주요 경제지표(전년 대비 증가율)

구분	2016	2017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GDP	2.9	3.1	1.0	0.6	1.4	-0.2
최종소비	3.0	2.8	0.5	1.0	1.0	0.9
고정투자	5.6	8.6	3.6	1.8	0.9	-1.2
수출	2.6	1.9	2.1	-2.7	5.6	-5.3
수입	4.7	7.0	4.9	-1.0	3.2	-2.9
국민총소득	4.2	3.1	2.3	-0.6	2.4	-1.2
최종소비	3.0	2.8	0.5	1.0	1.0	0.9
제조업	2.4	4.4	1.7	-0.1	2.7	-1.7
서비스업	2.5	2.1	0.4	0.7	1.0	0.3
소비자물가	1.0	1.9	2.1	1.9	2.3	1.5

### 고용지표(만 명, %)

구분	2016	2017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경제활동인구	2,742	2,775	2,726	2,799	2,796	2,778
취업자수	2,641	2,672	2,610	2,692	2,700	2,688
실업자수	100.9	102.3	116.2	107.4	96.3	89.2
경제활동참가율	62.9	63.2	62.2	63.8	63.6	63.1
실업률	3.7	3.7	4.3	3.8	3.4	3.2
고용률	60.6	60.8	59.6	61.3	61.4	61.0

### 중소기업 관련 주요 경제지표

	2016	2017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73.2	73.1
중소제조업 생산지수	107.5	108.6
중소기업 출하지수	108.4	109.0
중소기업 제고지수	114.9	121.9

### 중소기업 현황

		2014	2015
사업체 수(천 개)	계	3,545	3,605
	대기업	3	4
	중소기업	3,542	3,601
	(비중, %)	99.9	99.9
종사자 수(천 명)	계	15,963	16,775
	대기업	1,935	1,648
	중소기업	14,028	15,127
	(비중, %)	87.9	90.2

# 2017 HIGHLIGHT

## 1월

### 창립 38주년 창립기념식



2017년 1월 25일(수)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 1층 대강당에서 창립 38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창립기념식에는 본부 임직원 및 전 부서장, 수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창립 38주년을 기념한 본 행사에서는 국무총리 및 장관·청장 표창 등 총 20명의 외부수상 전수와 장기근속직원 141 명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이외에도 이사장 표창 근무 유공직원 30명, 경시대회 우수 부서 포상 등 부서 및 개인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다. 이날 창립기념식에서는 직원들이 출연한 신규사가 동영상에 첫선을 보여 직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 3월

### 기업인력애로센터 개소식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7년 3월 6일(월) 중진공 대전지역본부에서 '기업인력애로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기업인력애로센터는 구직자 위주가 아닌 중소기업 입장에서 인력애로를 종합 해소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중진공 전국 16 개 지역본부에 설치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임채운 이사장은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청년은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신용하고, 중소기업은 반대로 인력난을 겪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이번 기업인력애로센터 설치를 계기로 만성화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2월

### 기술사업화 협력기관 MOU



임채운 이사장은 2017년 2월 24일(금) 한국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기술사업화 협력기관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기술사업화 협력기관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국내·외 기술사업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체를 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중진공 및 한국산업기술포럼, 한국산업단지공단, 벤처기업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등 5개 기관은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지원 및 인력양성, 수출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4월

### 해외민간네트워크 발대식



국제협력처는 2017년 4월 25일(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2017년 해외민간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294개사 및 48 개국 125개사 해외민간네트워크가 참가하여 1:1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참여 중소기업은 상담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해외민간네트워크를 선정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선정된 해외진출단계에 따라 최대 1년간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게 되며,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향후 해외민간네트워크는 바이어 발굴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제휴, 조달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2017 HIGHLIGHT

### 5월

#### 진주혁신도시 기관장 협의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7년 5월 17일(수) 진주시청에서 개최된 '진주혁신도시 기관장 협의회' 창립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희 진주시장을 비롯한 교육장 및 11개 혁신도시 공공기관 기관장 등 15명이 참석하였다. 이번엔 별도 협의회를 구성기로 한 것은 혁신도시 환경이 복잡해지며 실무자 차원의 대응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화칙과 실무협의회 구성안을 확정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항을 공유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추후 기관장 협의회는 지역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협의체로 발전될 것이라 기대된다.

### 7월

#### 제12회 동아시아라운드테이블



중진공 임채운 이사장은 2017년 7월 6일(목)부터 1박 2일간 태국 후아히에서 개최된 제12회 동아시아라운드테이블 회의에 참석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동아시아라운드테이블 회의는 2007년부터 시작된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참가하는 중소기업 지원 기관장 간의 연례 회의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주제로 각국 기관장들의 회의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임채운 이사장은 중진공의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설명하는 등 강연을 진행하며 좋은 현장 반응을 이끌어냈다.

### 6월

#### 제4회 윤리경영의 날 행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7년 6월 2일(금) 경남 진주 본사 및 전국 31개 지역본지부, 6개 연수원에서 '제4회 윤리경영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고객행복실에서는 '임직원 청렴서약식' 등 다채로운 윤리경영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직원들이 직접 배우로 참여한 '청렴콘서트'는 많은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냈다. 행사 이후에는 지역 내 12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경남 청렴클러스터'와 합동으로 혁신도시 주변에서 청렴 가두캠페인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임채운 이사장은 '조직 내부적으로 자율적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임직원 상호 간 청렴을 독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8월

#### 리마인드 교육



인재경영실은 2017년 8월 31일(목)~9월 1일(금) 및 9월 7일(목)~9월 8일(금), 2차에 걸쳐 총 4일간 태백 글로벌리더십연수원에서 '17년 리마인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5·'16년에 입사한 5급 직원을 대상으로, 입사 초기의 열정과 초심을 되찾기 위한 리프레시 도모를 위해 마련되었다. 임채운 이사장은 이번 리마인드 교육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신입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직 적응과 관련된 강연으로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총 94명의 신입직원이 참가한 이번 교육은 요리 및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유대감을 향상시켰다.

## 2017 HIGHLIGHT

### 9월

####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7년 9월 12일(화) 진주중앙시장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서 본사 등 중진공 임직원 80여 명이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여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바구니 1,300개를 제작·배포하였다. 임채운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중진공은 본사 이전에 앞서 이미 2012년에 진주 중앙유등시장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1월

#### 포항 지진 피해 중소기업 현장방문



중진공 정진수 기업지원본부장은 2017년 11월 16일(수) 포항지역 지진 피해기업을 살피고, 신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정진수 본부장이 방문한 인텔철강(주)(대표이사 정화일)은 지진으로 사무실 벽체 균열과 파손의 피해를 입었으며, 가드레일 등을 생산하는 공장의 바닥과 야적장에도 균열이 생겨 신속하게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진공 정진수 기업지원본부장은 "중진공은 피해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현장긴급예로대응반을 설치하고, 중기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연계하여 조속히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업을 독려했다.

### 10월

#### 2017 글로벌 유통망 소싱페어



중진공 정진수 기업지원본부장은 2017년 10월 18일(수) 진주 제이스퀘어호텔에서 개최된 '17년 서경글로벌뷰처스클럽 10월 월례회'에 참석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제언 및 글로벌 경기동향'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2부로 구성된 이번 특강은 50여 개 서부경남권 수출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을 대상으로 마련되었다. 중진공 정진수 기업지원 본부장은 특강 2부에서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기술', '지속성장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CEO가 갖춰야 할 요건' 등 글로벌 시장 경기 동향 및 해외시장 개척 관련 제언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의에서 정진수 본부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세계 경제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며 기업을 독려했다.

### 12월

#### 제25회 중소기업 지원아이디어 시상식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7년 12월 13일(수) 서울 마포 중소기업DMCT타워에서 개최된 '제25회 중소기업 지원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 참여하였다. '중소기업 지원 아이디어 공모전'은 중진공과 ㈜헤럴드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199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이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공모전에는 창업과 일자리, 기술개발 정책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제출된 182편의 아이디어에 대해 1, 2차에 걸쳐 엄정한 심사를 진행, 총 17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중진공 임채운 이사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접수된 아이디어들을 적극 반영하겠다"라며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

# 01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16	2017년 사업추진 방향 및 실적
18	기업진단
20	정책자금 융자·출자
43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
64	인력양성
78	기술지원 및 현장애로 해결

## 2017년 사업추진 방향 및 실적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자생력 강화와 글로벌화를 주요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을 확대하였다. 특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중진공이 2017년도에 추진한 중소기업 지원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진공 사업추진 기반인 기업진단을 통해 정책자금 용자 신청업체에 대해 총 16,456억 원의 정책자금 용자를 지원하였고, 용자뿐만 아니라 진단을 통해 파악된 기업의 문제점 및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R&D, 보증 등의 유관기관 사업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마케팅, 연수 등의 중진공 사업을 연계하여 진단기업에 대해 총 9,671건의 정책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였다.

**정책자금 용자출자사업**은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창업 활성화, 자금조달 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7년 총 22,836개 기업에 46,350억 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창업·일자리 분야 및 전략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성과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목적성을 제고하였으며, 산업구조조정(조선·해운업 등), AI, 사드, 지진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에 신속히 대응, 안전망 역할을 하였다.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의 지원등급 완화, 금리 인하, 연대보증을 면제하였으며 수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진출 지원자금을 신설하여 수출·수출사업화 연계·GMD 매칭·온라인수출 기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서비스업 지원확대, 시설자금 대출기간 연장, 전략산업 재정비, 4차 산업혁명 업종 우대 등 혁신 성장을 지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였다.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사업** 중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지역 중소기업수출마케팅사업에 1,586개 업체가 참여하여 67백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온라인으로는 Gobizkorea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2017년까지 중소기업 50,140개사의 199,430개의 상품정보를 DB로 구축하였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HIT500 제품 352개를 발굴하고, 국내 정책매장(행복한백화점, 아이쇼핑)과 온라인오픈마켓(G마켓, 11번가 등) 내 HIT500 제품 특별판매기획관 운영 등을 통해 연간 6,107백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그리고 해외 대형유통망에 B2C(소비재) 위주의 중소기업제품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사업은 소비자 직접판매 및 연계판매 89억 원, 프로모션 116억 원, 대리점(상) 사업 14억 원 등 2017년 한해 219억 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MOU체결(6개국 9개 기관), 산업협력관 교환(20개국 29명), 해외시장 진출환경 세미나(10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인력양성사업**은 인력유입부터 장기 재직에 이르는 인력양성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21,450명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추진하였고, 중소기업 특성화고 등의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총 19,242명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5개 연수원을 통해 2017년 46,190명, 누적 인원 140만 명의 연수인원을 달성하였으며, 스마트공장 실습장비 “러닝팩토리” 개발과 전문 교육장 “넥스트스퀘어”를 개소하여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 신규로 추진한 내일채움공제사업은 2017년(누적 기준) 26,813명이 가입하였으며, 2016년에 출범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7년(누적 기준) 43,346명이 가입하여 청년과 핵심인력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창업성공패키지사업**은 우수한 (예비)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창업자 양성에 집중된 청년창업사관학교(2011년 개교)의 지원범위를 확대 개편하여 창업 준비 단계부터 창업 사업화·성장 단계까지 창업의 숲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7년간 사업화지원을 통해 '17년 졸업생 415명을 포함한 총 1,930명의 청년 CEO를 배출하였으며, 매출액 11,769억 원, 지적재산권 4,167건, 일자리 창출 4,617명의 지원성과를 거두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현장애로 해결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기술 전반의 문제해결 방안 제시로 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 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기술·경영, 특화형, R&D사업계획, 원스톱 창업지원 분야에서 1,441개 기업을 대상으로 111.48억 원, 4개 컨설팅 대학원에 16.25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R&D 성공기술 및 특허기술 중 사업화 추진이 안 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지원 등으로 67개사를 지원하였으며, 619백만 원의 신규매출을 창출하였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에도 중진공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종합지원 기관으로서 국가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내·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성장·발전해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판로·수출지원, 인력양성지원, 기술지원 등 각종 시책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26개의 옵션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단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에 최적화된 모듈을 선정·활용하여 진단을 실시한다.

사업개요

##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기술·경영 전문가가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분석한 후 개선 로드맵 제시 및 정책자금, 마케팅, 인력 등 필요한 정책사업을 맞춤형으로 연계지원하는 사업이며, 정책자금 융자 신청업체에 대한 사전진단 및 융자 후의 사후진단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부실의 발생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 기업진단 추진절차

절차	업무내용
신청·접수	· 기업진단 신청서 접수(기업현황표, 정보제공동의서 등 필요서류 징구) * 기업진단 신청서에 애로분야 표기 및 상담
진단·평가	· 기업방문/실태조사 · 정책자금 지원 필요 시 기업평가등급 산출
처방	·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 개선과제 제시 · 사업연계추천서발급
전달	· 진단결과 전달(보고서 제공 및 프레젠테이션 실시) · 연계지원 안내 및 상담, 사업정보 제공
연계지원	· 정책자금 융자 : 소요금액 사정, 약정 및 대출 실시 · 자금 이외 사업 : 연계사업 개요, 문의처 등 안내
사후관리	· 개선과제 해결 및 연계지원 추진상황 점검 · 연계지원 실적집계 및 관리, 이행점검, 우수사례 발굴

2006년부터 운영 중인 기업진단시스템은 중소기업의 기술/산업분석, 핵심역량분석, 경영성과분석, 전략 및 로드맵 등 8개의 필수모듈과 투자타당성 분석, 설비투자회수기간 검토, 조직문화 진단 등 26개의 옵션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단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에 최적화된 모듈을 선정·활용하여 진단을 실시한다.

2017년에는 기업진단 사업량을 크게 확대하여 정책자금 지원기업에 대해 평가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금건전성 강화가 이어지도록 하였다.

자금 지원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금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년도 신설된 표준진단을 보강 및 확대운영하였다. 표준진단은 자금 평가 과정에서 파악된 기업의 취약점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실행방법이 포함된 표준솔루션을 선별·제시해준다. 또한 동종 산업군 내에서 자사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산업 동향, 업계 평균 경영성과와의 비교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정책금융 집행기관으로서 단순히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경영 개선에 대한 이행 의지가 높아 성과창출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맞춤형 종합진단 및 지속적인 후속 연계지원을 제공하는 공모형 종합진단을 신설·운영하여 기업진단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 인식도 제고 및 스마트공장 기초 기반조성을 위하여 관련 진단모형을 마련하였다. 즉,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관리 수준을 분석하고 스마트공장화를 위한 개선 로드맵 및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제조혁신 역량진단' 모듈을 신규로 개발하였다.

이와 더불어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진단평가아카데미(교육)과정을 실습 및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보강하여 실무형 진단 전문가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수료자에 대해 실무 역량 평가(시험, PT평가)를 거쳐 중진공 내부직원용 자격증인 기업진단평가사 등급을 부여하며, 2017년 9회 교육을 통해 총 83명 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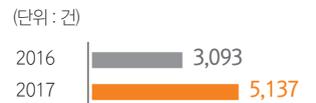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기업진단을 통한 맞춤형 종합 지원기관'으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진단 품질 제고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견인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기업진단 수행실적**



**표준진단 수행실적**



**표준진단 보고서 구성**

기업현황, 산업(시장)분석, 경영성과분석, 핵심역량분석, 전략 및 로드맵, 연계지원, 표준솔루션(업무개선 방법서)

**매출액 증가율비교**



**약정해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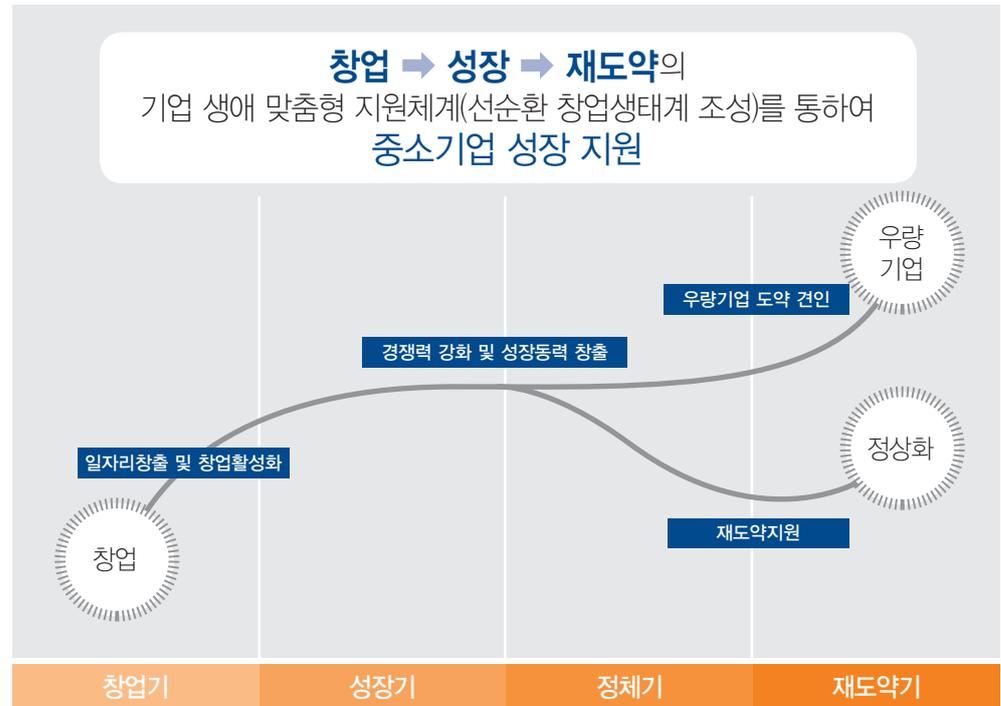
**기업진단평가사 취득현황**



## 정책자금 용자 · 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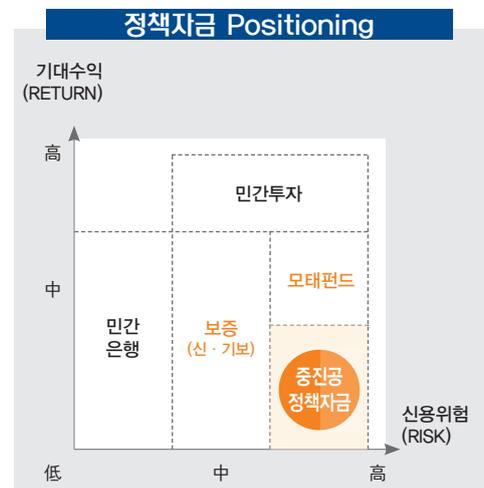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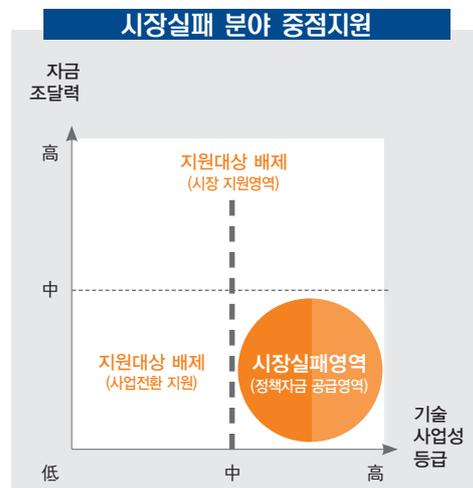
### 사업개요

### 지원체계



### 역할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력이 취약한 시장실패영역 중소벤처기업 중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 집중 지원하여 우량기업으로 견인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2017년도 정책자금 용자 규모는 46,350억 원(당초 35,850억 원, 증액 1.05조 원)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총 22,836개 기업에 46,350억 원을 지원하였다.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2017년 3차례(5월, 7월, 11월)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추경(국회)으로 용자 1.05조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는 등 대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창업기업의 지원등급을 완화하고 금리 인하 및 연대 보증을 면제하여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직/간접 수출, 수출사업화 연계, GMD 매칭, 온라인수출 등 다각도에서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글로벌진출 지원자금을 신설하여 수출 가속화를 지원하였다.

또한 서비스 업종지원 확대, 전략산업 정비, 4차 산업혁명 업종 우대, 시설자금 대출기간 확대(8년 → 10년) 등 혁신 성장을 지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산업구조조정,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 사드(THAAD) 피해, 지진 등 대내외 악재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하여 금융 안정망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및 불공정행위 피해기업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정책자금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일자리창출, 수출, 시설투자 등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순위 개편(정책우선도) 및 이자 환급 확대(수출), 대출만기를 연장(2년 이내)하여 우대를 강화하였다.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및 금융거래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며 사전상담 예약 시스템을 확대·운영하여 수요기업의 상담 대기시간을 감축하였다.

**중진공 정책자금 용자신청 절차도**



**정책자금 용자 지원실적**

(단위 : 개, 억 원)

구분	'17년 정책자금 용자 예산		'17년 지원업체 수
	당초	최종	
창업기업지원	16,500	20,500	13,172
신성장기반	8,800	12,300	2,399
신시장진출지원	5,750	5,750	2,862
긴급경영안정	750	3,750	2,482
재도약지원	2,550	2,550	1,207
투융자복합금융	1,500	1,500	714
합 계	35,850	46,350	22,836

세부사업 추진실적

창업기업지원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창업 활성화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자금으로, 1998년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시작으로 2010년 재창업자금, 2012년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종진공은 창업기업지원 예산 20,500억 원(창업기업지원자금 19,100억 원, 청년전용창업자금 1,400억 원)을 13,172개 업체에 지원하였다.

2017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일반창업기업지원	1,910,000	13,227	2,983,021	11,423	1,910,000
청년전용창업	140,000	3,301	293,985	1,732	140,000
계	2,050,000	16,528	3,277,006	13,172	2,050,000

가.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1) 사업개요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조달력이 부족한 설립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지원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

2) 사업추진현황

2017년도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사업은 19,100억원을 조성하여 연 예산 100.0%를 집행하였다.

2017년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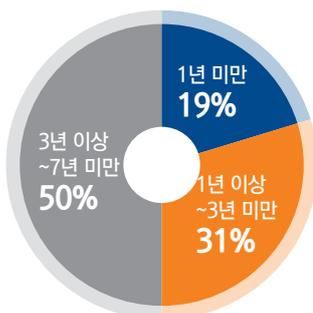
(단위 : 개, 백만 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910,000	13,227	2,983,021	11,423	1,910,000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은 업력별로 설립 1년 미만 3,689억 원(19.3%), 설립 1년 이상~3년 미만 5,868억 원(30.7%), 설립 3년 이상~7년 미만 9,543억 원(50.0%)이 지원되어 창업초기기업 지원 목적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다.

업력별 지원 실적

(단위 :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업력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구분	신 청		대 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1년 미만	2,009	562,671	1,689	368,856
1년 이상~3년 미만	4,678	994,982	3,980	586,838
3년 이상~7년 미만	6,540	1,425,368	5,754	954,307
계	13,227	2,983,021	11,423	1,910,000

지원업체의 매출액 규모는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기업이 49.0%(9,361억 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해 전체 예산 중 92.4%(17,642억 원)를 집행하였다.

**매출액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

구분	신 청		대 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비율
10억 원 미만	9,028	1,676,603	5,920	828,161	43.4%
10 ~ 100억 원 미만	4,102	1,240,692	5,068	936,063	49.0%
100억 원 이상	97	65,726	435	145,776	7.6%
계	13,227	2,983,021	11,423	1,910,000	100.0%

**3) 제도개선 사항**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등급을 완화(1단계)하고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확대(평가등급에 따른 면제→면제)하였으며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에서 0.3%p 인하하여 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나. 청년전용창업자금

### 1) 사업개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창업촉진을 위하여 청년창업자에게 저금리(2.0% 고정금리)의 창업자금(기업당 1억 원 이내, 융자기간 6년 이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금과 함께 교육, 멘토링, 마케팅 지원 등을 패키지로 연계하여 창업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2) 사업추진현황

2017년도에는 1,732개 업체에 1,400억 원을 지원하여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2017년 청년전용창업자금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140,000	3,197	293,985	1,732	140,000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이후 후속 연계지원으로 창업 초기기업의 사업화 애로해결을 위해 1:1 멘토링(자금지원 후 1년간 4회)을 5,601건 실시하고, 청년창업가 991명에 대해 석세스코칭 상담(1,448건)을 실시하여 데스밸리 극복을 지원하였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글로벌 진출 유망기업 100개사를 선정하고 수출지원을 통해 32개사 192만 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청년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기여하였다.

#### 2017년 연계지원 실적

구분	창업교육 (명)	멘토링		수출지원		
		멘토링 (회)	석세스코칭 (건)	상품페이지 (업체 수)	디렉토리북 (업체 수)	해외전시회 (업체 수)
지원결과	1,764	5,601	1,448	80	91	22

### 3) 제도개선 사항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 및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16년 2.5%에서 '17년 2.0%로 인하하였고, 정부의 연대보증 면제 확대 정책(창업 7년 미만 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라 연대보증 면제를 시행('17년 7월)하였다. 또한 사업화 준비가 완료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및 입교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성공패키지 자금을 신설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청년층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다.

##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신성장기반자금은 당초 구조개선자금 내 구조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과 협동화사업을 통합하여 2007년부터 신규로 추진되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율화 방안에 따라 2009년에 명칭을 경영혁신자금에서 신성장기반자금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2010년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신성장기반자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 1) 사업개요

- **신성장유망**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과 초기 가동비를 지원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 기술평가등급 우수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및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2014년 신설하였으며, 장기 저리로 시설자금 및 초기가동비를 지원
- **가젤형기업전용자금** : 고용 및 매출액이 크게 뛰는 고성장(가젤형)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15년에 신설하였으며, 최근 4년간 연평균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 20% 이상 고속 성장한 기업에 시설자금 및 제품 생산비 등을 지원

### 2) 사업추진현황

2017년 신성장기반자금은 예산 12,300억 원의 100%를 집행하였다.

#### 2017년 신성장기반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신성장유망	850,000	1,634	1,088,409	1,486	850,000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50,000	55	64,933	51	50,000
가젤형기업전용자금	330,000	914	460,380	862	330,000
계	1,230,000	2,603	1,613,722	2,399	1,230,000

### 3) 제도개선 사항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신성장유망 자금 내에서 사회적 경제 중소기업은 별도 운전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인재육성형전용 자금은 지원규모, 지원대상 및 우대조건을 확대하여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투자를 유도하였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 또는 내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애로, 수출금융 확보애로 및 재해 피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거 구조개선자금 내 특별경영안정사업의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재해복구지원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을 통합하였고, 2009년부터 사업전환지원사업의 회생특례지원자금을 통합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개편하였으며 2016년부터 수출금융을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으로 이관하였다.

### 1) 사업개요

- **재해복구 지원** : 자연재해 또는 인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하여 재해중소기업의 사업정상화를 추진
- **일시적경영애로** : 일시적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일반경영안정지원** : 원부자재 구입, 제품생산, 개발, 시장개척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일시지원 사업으로 편성

### 2) 사업추진현황

2017년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예산 3,750억 원(재해복구지원 및 일시적 경영애로지원 1,350억 원, 일반경영안정지원 2,400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특히, 산업구조조정, A(조류인플루엔자) 피해, 사드(THAAD) 피해, 지진 등 대내외 악재에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다.

### 2017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재해복구 지원	135,000	47	10,625	41	6,112	
일시적 경영애로지원		1,021	206,075	874	128,888	
일반경영안정지원	240,000	1,690	337,090	1,567	240,000	
계	375,000	2,758	553,790	2,482	375,000	

### 3) 제도개선 사항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해자금예산을 일시적 경영애로지원과 공동예산으로 운용하여 자금이 적시에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반영하고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속히 추가 운영하여 산업구조조정(350억 원), AI(75억 원), 사드(155억 원), 송인서적 부도(40억 원), 지진 및 폭우(61억 원) 피해기업을 지원하였으며 불공정행위 피해 기업(불공정거래 피해, 기술침해 피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일반경영안정지원자금을 2017년 재도입 후 중소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기여하였다.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미래성장가치와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이익공유형 대출과 성장공유형 대출이 있다. 2011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후, 2012년부터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714개사에 1,500억 원을 지원하였다.

### 2017년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구 분	예 산	신 청		대 여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이익공유형 대출	110,000	738	141,522	645	93,490
성장공유형 대출	40,000	97	89,290	69	56,510
계	150,000	835	230,812	714	150,000

## 가. 이익공유형 대출

### 1) 사업개요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에 저금리 신용대출 후 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이익연동이자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2011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 2) 사업추진현황

2016년도에는 645개사에 935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초기 금융비용 절감 및 담보부담 해소를 통해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에 일조하였다.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65.3%,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34.7%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으며,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금속, 잡화음식료, 섬유화공, 전기전자 순으로 지원 비중이 높았다.

### 2017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신 청		대 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비율
기계금속	202	32,608	180	23,960	25.6
섬유화공	96	17,850	85	13,050	14.0
전기전자	50	9,308	40	5,400	5.8
잡화음식료	135	26,016	123	18,620	19.9
기타	255	55,740	217	32,460	34.7
계	738	141,522	645	93,490	100

## 3) 제도개선사항

고정이자율 기준 기업별 신용대출금리에서 2.2% 차감시키던 것을 0.5%로 고정시키고, 최대이자 한도를 대출금의 35%에서 20%으로 대폭 축소시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성과배분이자의 경우에도 매년 결산기 영업이익의 3.3%, 6회 납부하던 것을 3개년 영업이익 합계액의 4%, 1회 납부로 변경하고, 납부방식을 기존 일시납에서 6개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참고> 이익공유형 대출 사업추진체계



## 나. 성장공유형 대출

###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대출방식으로 2008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 2) 사업 추진 현황

2017년도에는 69개사에 565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87.0%,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13.0%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으며,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금속, 섬유화학, 전기전자, 잡화음식료 순으로 지원 비중이 높았다.

### 2017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

구 분	신 청		대 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비율
기계금속	32	32,100	26	23,020	40.7
섬유화학	17	14,950	11	9,150	16.2
전기전자	16	12,800	12	9,100	16.1
잡화음식료	14	14,000	9	7,900	14.0
기타	18	15,440	11	7,340	13.0
계	97	89,290	69	56,510	100.0

### 3) 제도개선사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운전자금의 대출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전환사채 표면금리를 1%에서 0.5%로, 만기보장금리를 4%에서 3%로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완화하였다.

#### <참고> 성장공유형 대출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수립/공고	▼	중기청, 중진공
신청·접수	▼	지역본(지)부
사업타당성 평가 및 회계실사	▼	현장 실태조사
전환조건 협상	▼	전환가격 및 전환조건 등 협상
투융자복합금융사업 심의위원회	▼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
계약체결 및 자금지원	▼	전환사채 인수계약 후 자금지원
주식전환/만기상환	▼	계약조건에 따라 주식전환 또는 분할 만기상환

## 모태조합 출자

### 1) 사업개요

유망 창업·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성장을 지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하기 위해 모태조합 출자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사업추진현황

중기부, 문체부, 과기정통부, 고용부 등 10개 부처(기관) 참여하고 있으며, 부처 출자 목적 및 특성에 따라 펀드 운용될 수 있도록 계정별로 운영(現 13개 계정)하고 있다.

### 계정별 예산현황

(‘17년 12월 말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중진	청년	지방	엔젤	문화	과기 정통	영화	특허	보건	관광	스포츠	환경	교육	계
'05~'12	8,631	-	-	790	3,620	100	220	1,430	-	-	-	-	-	14,791
'13	325	-	-	500	300	-	100	-	200	-	-	-	-	1,425
'14	625	-	100	300	200	500	100	-	300	-	-	-	-	2,125
'15	1,520	-	-	500	541	500	100	170	300	130	200	-	-	3,961
'16	1,000	-	-	-	360	370	100	-	-	100	200	-	-	2,130
'17	5,000	3,300	-	-	530	200	180	-	-	150	70	200	120	9,750
계	17,101	3,300	100	2,090	5,551	1,670	800	1,600	800	380	470	200	120	34,182

모태조합이 3조 4,182억 원을 출자하여, 총 584개, 18조 5,39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운영 중으로 출자금 대비 5.4배의 승수효과를 달성하였다.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촉진 및 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기존 2000년부터 운용되어온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글로벌진출지원자금이 추가로 편입되어 2017년도부터 신규로 사업이 개시되었다.

### 2017년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50,000	2,123	541,260	1,864	350,000
글로벌진출지원자금	225,000	850	267,920	998	256,115
계	575,000	2,973	809,180	2,862	606,115

## 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한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2000년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시중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위하여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 2) 사업추진현황

2017년도에는 1,864개사에 3,50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배정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여 우수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였다.

## 2017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350,000	2,123	541,260	1,864	350,000

업종별 지원실적을 보면 기계·금속 1,473억 원(42.1%), 섬유·화학 554억 원(15.8%), 전기·전자 527억 원(15.1%) 순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73.0%인 2,555억원이 지원되었다.

## 2017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

구분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비율
기계금속	829	217,761	725	147,345	42.1
섬유화학	314	81,145	281	55,444	15.8
전기전자	343	81,937	296	52,717	15.1
잡화음식료	263	64,370	241	43,437	12.4
기타	374	96,047	321	51,057	14.6
계	2,123	541,260	1,864	350,000	100.0

기술유형별로는 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록기술 1,617억 원(46.2%),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술 847억 원(24.2%),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술 367억 원(10.5%) 순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기술유형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업체 수	금액	비율	
			업체 수	금액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445	84,736	23.9	24.2
특허/실용신안/저작권	873	161,707	46.8	46.2
Inno-biz	133	30,560	7.1	8.7
기업부설연구소	191	36,746	10.2	10.5
벤처기업	162	23,146	8.7	6.6
공인 인증 및 평가기술	5	930	0.3	0.3
기술이전	5	770	0.3	0.2
Main-Biz	38	9,325	2.0	2.7
클라우드펀딩 받은 기업	2	250	0.1	0.1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10	1,830	0.5	0.5
계	1864	350,000	100.0	100.0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기술개발로 인해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시중 금융권의 자금 대출이 어려운 기술개발기업에 신용대출(3,129억 원, 89.4%) 위주로 중점 지원하여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지원이 이루어졌다.

### 2017년 담보별 지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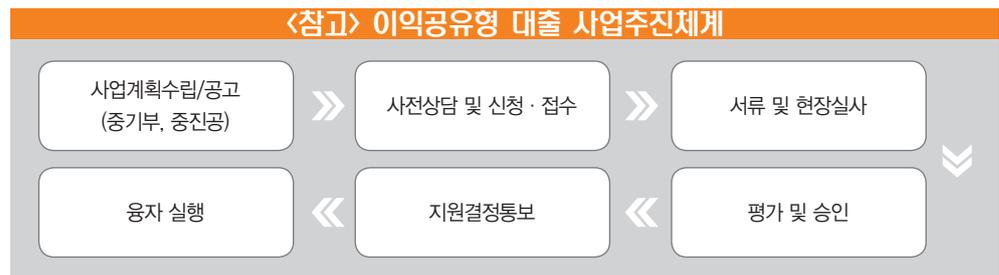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구분	신용	지식재산권	보증서	계
담보별	312,949	33,908	3,143	350,000

### 3) 제도개선사항

클라우드펀딩 받은 기업을 신청대상에 추가하여 다양한 기술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R&D 성공판정기업을 선제 발굴 및 지원하였다. 그 결과 IP담보대출은 2016년 300억 원에서 2017년 339억 원으로, 정부R&D 성공판정기업 연계는 2016년 748억 원에서 2017년 847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였다.

#### <참고> 이익공유형 대출 사업추진체계



## 나. 글로벌진출지원자금(수출마케팅사업체)

###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수출품 생산비용 및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획득 등 수출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글로벌진출지원자금은 2017년부터 기존 단기 회전방식(실적기준, 계약기준)에서 장기 사업화 자금(수출사업화)을 추가 신설 운영하였다.

### 2) 사업추진현황

2017년도에는 998개사에 2,25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배정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도모하였다.

## 2017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예 산	지 원 실 적	
	업체 수	금액
225,000	998	225,000

### 3) 제도개선사항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지원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1,250→2,250억 원)하였으며,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 수출사업화자금을 신설(500억 원) 운영하였다.

수출기업의 성과향상을 위해 ① 금리인하(기준금리→기준금리 -0.3%p) ② 대출기간 확대(180일 이내→1년 이내) 및 이자납부 방식변경(일시납→매월 균등납부) ③ 성과연동 인센티브 강화(이자환급을 대출기간(5년) 동안 매년 적용)를 추진하였다.

## 재도약지원자금

재도약지원자금은 실패경영인 및 부실징후 기업 그리고 위기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도 신설된 자금으로 업종전환 및 추가, 사업재편, FTA 피해 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무역조정) 자금, 실패경영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재창업자금, 부실징후기업 갱생 목적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개선전용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중진공은 재도약지원자금 예산 2,550억 원 (사업전환 1,250억 원, 재창업 1,000억 원, 구조개선 300억 원)을 1,179개 업체에 지원하였다.

### 2017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사업전환(무역조정)	125,000	287	164,724	285	125,000
재창업	100,000	968	210,186	682	100,000
구조개선	30,000	249	55,890	212	30,000
계	255,000	1,504	430,800	1,179	255,000

### 가. 사업전환지원자금

#### 1) 사업개요

사업전환지원사업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도록 융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 2) 사업추진현황

2006년 9월 사업을 개시한 이후, 2017년까지 총 2,023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여 3,138개사에 15,578억 원의 자금을 집행하였다. 2017년에는 125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고, 242개 업체에 1,149억 원을 지원하였다.

### 2017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억 원, 개)

예산	신청액	직접대출		대리대출		합계	
		업체 수	대여액	업체 수	대여액	업체 수	대여액
1,149	1,647	207	619	45	530	242(10*)	1,149

\* 10개 기업 중복 제외

사업전환 승인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업종추가가 사업전환계획 승인업체 125개사 중 96.0%인 120개사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업종전환은 4.0%인 5개사이다.

세부업종별 승인실적을 살펴보면 유통(34개, 27.2%), 기타(29개, 23.2%), 기계·금속(17개, 13.6%), 전기전자(13개, 10.4%)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24개, 19.2%), 경기(23개, 18.4%), 강원(11개, 8.8%), 전남(10개, 8.0%)의 순서로 승인업체가 분포되었다.

### 2017년 사업전환계획 승인실적

#### 유형별 승인실적

유형	업종추가	업종전환	품목추가	합계
업체 수	120	5	-	125
비율(%)	96.0	4.0	-	100

\* 2012년 산업위 예산 심의 시 단순 품목 추가는 제외하라는 지적에 의거 추가유형 삭제

#### 업종별 승인실적

업종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	화공	섬유	잡화	유통	식료	기타	합계
업체 수	17	13	4	9	3	7	34	9	29	125
비율(%)	13.6	10.4	3.2	7.2	2.4	5.6	27.2	7.2	23.2	100

#### 지역별 승인실적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합계
업체 수	24	9	7	1	3	2	1	23	11	6	5	8	8	4	10	3	125
비율(%)	19.2	7.2	5.6	0.8	2.4	1.6	0.8	18.4	8.8	4.8	4.0	6.4	6.4	3.2	8.0	2.4	100

또한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기업의 신속한 유희자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산거래 중개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전환 성공사례집 제작 및 사업광고, 기획홍보기사 보도 등을 통해 사업전환사업의 활성화와 관심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 3) 제도개선사항

사업전환 대상업종(기존업종) 매출 비중요건 완화(35%→30%)를 통해 사업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융자신청 기간을 사업전환 승인 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여 기업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이 밖에도 사업전환 정책 목적성 강화 및 사업전환 자금의 내실화 추진을 위해 제조업의 업종변경 인정요건인 표준산업분류 변경을 5자리(세세분류)에서 4자리(세분류)로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 전환 대상매출 비중요건 완화

(단위: %)



#### 융자신청 기간 확대

: 사업전환계획 승인 후



## 나. 무역조정지원자금

### 1) 사업개요

무역조정지원사업은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으로 확실한 경우에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2) 사업추진현황

2007년 4월 무역조정지원법 시행 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45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약 505억 원의 융자를 누적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43개사에 101억 원을 지원하였다.

### 2017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예산	신청액	직접대출		대리대출		합계	
		업체 수	대여액	업체 수	대여액	업체 수	대여액
101	140	43	101	-	-	43	101

2007년 12월 제조업에 국한되었던 지원범위를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2012년 1월에는 지정요건을 완화(매출액 등의 무역피해지표 감소율 25%→10%)하였으며, 2012년 7월 중진공이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무역조정지원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한 결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및 융자 지원이 증가하였다.

### 연도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및 융자 지원 실적

(단위: 개사, 백만 원)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지정	2	3	2	0	8	24	26	17	24	39	145
융자지원	200	500	850	200	1,485	8,299	10,320	9,360	9,120	10,130	50,464

신문·라디오광고와 인쇄매체, 우수사례집 제작 등 종합적인 홍보 채널을 활용하고 업종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무역조정지원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제도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FTA 확대에 대비하여 기업이 무역조정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3) 제도개선사항

FTA 피해기업의 재무안정성 제고 및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연 2.1% 고정금리를 도입하여 무역조정 지원조건을 개선하였으며, 신속지원을 위해 무역조정 심의 횟수를 확대함으로써 무역조정 지원기업 지정 소요기간이 기존 24일에서 19일로 단축되었다.

재도개선



### 다. 재창업자금지원

#### 1) 사업개요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여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기업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금으로, 2017년도에는 682개 업체에 1,000억 원을 집행하였다.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소요기간 단축



#### 2) 사업추진현황

2017년도 재창업자금은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수요 발굴 및 제도개선 노력으로 집행실적을 100% 달성하는 등 실패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제공하였다.

### 2017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 만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100,000	968	210,186	682	100,000

담보별 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1,000억 중 직접대출 지원액이 89.6%(896억 원)이고 이 중 신용 대출이 80.7%(723억 원)으로 기술·사업성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재창업기업이 원활히 재기를 추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7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합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10,435	72,292	15,217	2,056	89,565	100,000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사업실패로 인해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자, 신용불량자, 법원의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자' 등의 순으로 지원 비중이 높았다. 특히 '저신용자 및 자금애로자'에 대한 지원이 66.3%를 차지하여 과거 사업실패 이력이 있지만 채무조정이 일정

완료되었음에도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하여 민간 금융권 이용이 현실적으로 제한된 재창업기업인에게 재기 기회를 적극 제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7년 신청자격별 지원실적

(단위 : 개사, 백만 원, %)

신청자격	업체 수	대출금액(B)	비율(B/A)
저신용자(7등급이하)	258	38,845	38.8
자금애로(5,6등급)	169	27,457	27.5
신용불량	115	15,097	15.1
파산·회생	99	10,983	11.0
신용등급 3~4등급	41	7,618	7.6
합계	682	100,000	100

업력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1년 미만(예비창업자 포함) 36.7%, 3년 미만 33.4% 등 재창업 초기기업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창업 초기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7년 업력별 지원실적

(단위 : %)

구분	1년 미만	3년 미만	3년 이상	합계
비중	36.7	33.4	29.9	100

업종별로는 유통(18.8), 기계(13.8%), 금속(12.3%), 잡화(10.3%) 등의 순으로 지원비중이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에 고르게 지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7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사, %)

구분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섬유	화학	잡화	식료	정보	유통	기타	합계
업체 수	94	84	47	24	33	69	70	38	45	128	50	682
비중	13.8	12.3	6.9	3.5	4.8	10.1	10.3	5.6	6.6	18.8	7.3	100

### 3) 제도개선사항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범죄 경중에 따른 소멸기간을 차등 적용하였고, 지원대상 확대,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정직한 실패자가 쉽게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신기보(보증서부대출)와의 협업 강화로 우수기술을 보유한 신용미회복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기금건전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라. 구조개선전용자금**

**1) 사업개요**

구조개선전용자금은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하여 폐업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운전자금에 한해 2015년 신설되었다.

**2) 사업추진현황**

2015년 1월 신규 사업으로, 2017년 총 212개사에 30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위기기업의 조기 정상화에 기여하였다.

**2017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억 원)

예산	신청액	지원결정액	대여업체수	대여액
300	558	301	212	300

신청요건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진로제시컨설팅과 연계하여 지원하였던 기업 비중이 79.7%(239억 원)로 가장 높았으며, 중진공 경보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기업을 요건으로 하는 기업이 11.1%(33.4억 원), 신용불량·희생인가 기업이 5.5%(16.5억 원), 은행권의 추천을 통해 지원하는 기업 2.3%(7억 원), 워크아웃추진기업 1.4%(4.1억 원) 순이었다.

**2017년 신청요건별 지원실적**

(단위 : 억 원)

지원대상	신청		대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진로제시컨설팅	194	39,540	174	23,900	79.7
중진공, 신기보 지정	26	5,620	22	3,340	11.1
신용불량·희생인가	20	7,530	9	1,650	5.5
은행권 추천	5	1,800	4	700	2.3
워크아웃	4	1,400	3	410	1.4
계	249	55,890	212	300,000	100.0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83.7%,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16.3%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편이며, 세부업종별로는 기계금속이 35.0%로 가장 높고, 잡화음식료 21.0%, 섬유화학 16.0% 순이었다.

### 2017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억 원)

구분	신청		대여업체 수		비중(%)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기계금속	83	184	72	105	35.0
전기전자	28	66	25	35	11.7
섬유·화학	37	81	32	48	16.0
잡화음식료	56	99	47	63	21.0
기타	45	129	36	49	16.3
계	249	559	212	300	100.0

담보별 지원현황을 보면 구조개선전용자금 총 300억 원 지원액 중 신용대출이 100%(30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담보가 부족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수적인 경영애로업체의 특성에 기인한다. 제도적으로 대리대출 방식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다.

### 2017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

구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계
담보별	30,000	-	-	30,000

### 3) 제도개선사항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 은행권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은행권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에 노력하였으며 진로제시컨설팅과의 자금 연계지원율을 높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고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확대를 통해 자금지원업체에 대한 멘토링을 강화하여 부실률 및 경영정상화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참고** 재도전종합지원센터

**1) 사업개요**

경제침체 지속, 저성장 경제환경 하에서 위기 및 실패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바, 경영애로 극복과 원활한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 창구의 필요성에 의해 '14년 서울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의 개소를 시작으로 '17년 12월 말 현재 9개소가 운영 중이다. 사전 전문상담, 자금지원, 교육, 사후멘토링, 연계지원 등 재도전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역동적 창업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2) 사업추진현황**

사전상담은 자금 및 컨설팅 상담, 실패경영인의 채무조정방안을 모색하여 재기지원의 발판을 마련하여 주는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상담, 위기기업의 회생절차를 안내해주는 법인회생상담, 인수·합병 등 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안내해주는 M&A 상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7년 총 2,945건 상담이 실시되었으며, 이 중 자금 관련 상담은 52%, 경영애로, 회생·파산 등 자금 외 상담은 48%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담실적총괄(총 2,945건 상담/2,052회)							
일반상담		전문상담		상담방식			합계
항목	건수	항목	건수	방문	전화	출장	
경영애로전반	567	신용회복	120	1,297	739	16	2,052
재창업자금	1,529	법률상담	3				
재창업교육	124	개인회생,파산	88				
구조개선전용자금	250	M&A	2				
재기컨설팅	203						
세무상담	17						
기타(타사업연계 등)	42						
소계	2,732		213				

상담만족도는 상담의 효과성, 전문성, 성실성, 신뢰도 측면에서 98.5%로 집계되어 위기 및 재도전기업에 특화된 상담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담 만족도(1,250개 업체, 총 5,000문항 중 매우 만족 77.4%, 만족 이상 98.5%)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상담효과성	932	288	30	0	0	1,250
상담전문성	941	288	21	0	0	1,250
상담성실성	1,020	223	7	0	0	1,250
상담신뢰도	979	255	16	0	0	1,250
합계	3,872	1,054	74	0	0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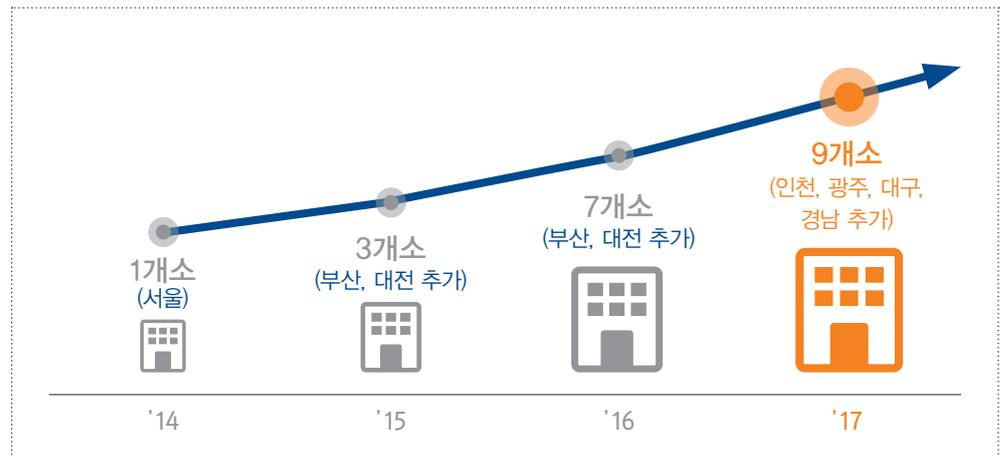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 후 정례적(분기별) 사후멘토링을 통해 성과 모니터링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 마케팅, 연수, R&D 등 연계지원을 통하여 지원기업의 생존율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2017년 사후멘토링은 총 3,180건 실시되었으며, 경영전략, 대출금 점검, 경영애로 파악, 연계지원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 사후멘토링 실시 현황

구분	센터 (9개)	센터 외 (22개)	계	주요 내용 (복수)	경영전략	대출금점검	경영애로	연계지원	계
건수	1,480	1,700	3,180		1,530	514	1,412	1,552	5,008

### 3) 제도개선사항

재도전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의 확대 및 고객접근성 향상을 위해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개소(2개소)\*하였으며, '17년 3명 증원을 기반으로 센터별 내부직원 2명, 컨설턴트 1명(서울 2명)으로 운영 중이다. 또한, 재도전지원 홍보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재도전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정례화하여 재도전 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멘토링 전산시스템 신규 구축을 통해 기업 현황관리 등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

수출마케팅 및 글로벌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74조에 추진근거를 두고 있다.

1979년 해외기술도입 및 중소기업 해외투자지원 등 해외산업협력지원을 시작으로 1996년 공공부문 최초 온라인 B2B사이트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운영, 1998년 수출인큐베이터(BI)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8년 해외마케팅 지원 창구 단일화 조치 및 2013년 중소·중견기업 총력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재의 수출마케팅 및 글로벌화 지원사업이 완성되었다.

수출마케팅 및 글로벌화 지원사업은 31개 지역본·지부의 국내 지원 인프라와 정책자금 등 다양한 연계지원 수단을 통해 유망내수기업 및 제품을 '발굴→육성→온·오프라인 해외진출' 지원하는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타 기관과 차별화된 특징이다. 또한, 지자체, 수출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원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사업개요

주요사업 및 추진체계		
중진공 고유사업	협업사업	유관기관 사업
<p><b>수출유망 내수기업(제품) 발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기제품간접광고(PPL)지원</li> <li>민간대형유통망연계지원</li> <li>해외전시판매장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중소기업수출 마케팅</li> <li>수출인큐베이터(수출BI)</li> </ul>	<p><b>(코트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지사화사업</li> <li>해외비즈니스출장사업</li> <li>해외투자진출지원 등</li> </ul>
<p><b>제품 현지화 및 수출기업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성공패키지</li> <li>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li> <li>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운영</li> </ul>	<p><b>공동사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수기업 수출기업화</li> </ul>	<p><b>(무역협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활용 컨설팅</li> <li>무역통계서비스 제공</li> <li>무역아카데미 운영 등</li> </ul>
<p><b>글로벌 역량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사업</li> <li>해외기술교류사업</li> <li>해외산업협력지원</li> </ul>		<p><b>(무역보험공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보험 · 보증제공 등</li> </ul>
<p><b>온·오프라인 해외진출</b></p>		

또한, 수출마케팅사업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수출성공 및 향상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금리환급, 수출전용자금 지원규모 확대 추진을 통한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성장단계별(내수/초보→수출초보→수출유망→글로벌강소)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수출마케팅 및 글로벌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74조에 추진근거를 두고 있다.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중진공은 유망 중소기업(제품) 발굴 및 테스트마케팅 강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성장단계별 맞춤형·패키지 지원,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2017년 총 71.8억 불의 수출성과\*(2016년 56.8억 불)를 달성하였다.

**\* 2017년 사업 참여기업의 수출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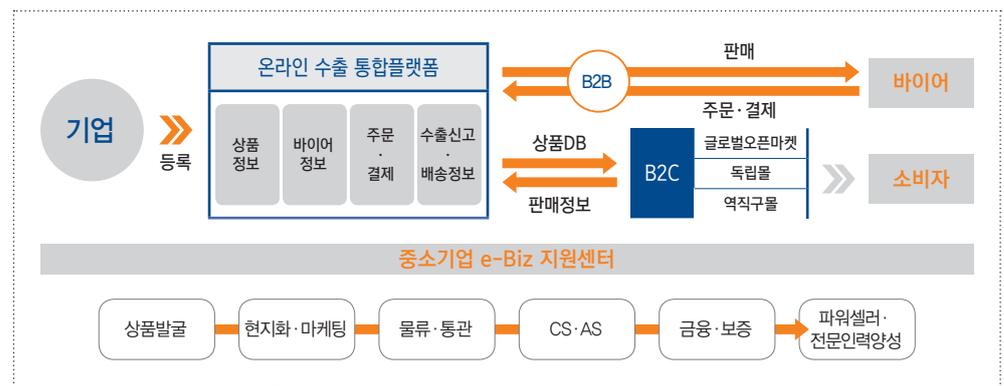
산업부 주관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목표 : 6,000개사)에서 중진공은 3,361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여 기관 목표(2,588개사) 대비 129.9% 초과 달성으로 선도기관인 kotra보다 더 높은 성과를 기록했고, 이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2018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목표 : 5,000개사)에 최대 목표(2,600개사)를 부여받았다.

**2017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기관별 목표 및 실적**

기관명	중진공	kotra	무보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기타	합계
목표(개사)	2,588	2,400	1,160	341	317	190	6,996
실적(개사)	3,361	2,536	1,099	1,031	475	416	8,918
달성비율(%)	129.9	105.7	94.7	302.3	149.8	218.9	127.5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지원 여건 개선을 위해 온라인 수출 지원 확대 필요성 등 근거자료를 적극 제시하였으며, 온라인 수출 순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하였고, 현 정부 국정과제로도 채택되었다.

**온라인 수출 통합 지원 시스템**



아울러, 민간 수출전문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GMD (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사업을 신규 추진,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순과정(수출준비→해외영업→수출)을 밀착 지원하여 284개사, 323백만 불(참여기업의 전년대비 수출실적 12.2%)의 성과를 창출하였고,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수요자 선택형 수출바우처 사업의 2차 관리기관으로 지정(중진공, kotra)되어 수요자 맞춤형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 차이나하이웨이 프로그램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발하여, 성공적인 시장 진입 및 현지화를 위해 수출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준비, 거래선 발굴, 계약체결, 해외진출 등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마케팅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참여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메뉴판 내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율마케팅을 수행한다.

참여기업의 체계적인 마케팅활동 수행을 위해 중국 진출 특성에 맞는 마케팅 프로그램 활용 가이드와 우수 활용 사례를 제공하였고, 공동마케팅 프로그램(상품전, 판매전, 바이어 초청 상담회)을 기획·운영하여 지원성적을 극대화하였다.

### 세부사업 추진실적

#### 공동마케팅 추진 현황

(단위 : 개사, 천 불)

구분	개최기간	참여기업 수	상담액	계약 추진액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박람회	'17.7.21~7.23	11	4,548	3,158
우수 중기제품 특별판매전	'17.8.25~8.28	52	2,633	2,624
한류플러스포럼 및 우수바이어 초청상담회	'17.9.15	105	374,372	94,743

2017년 270개사를 선정하여 14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글로벌 경기 둔화, 중국의 사드보복 등 대내외적인 약조건 속에서도 참여기업들은 전체 수출 증가율 11.4%, 대중국 수출 증가율 8.1%를 기록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 2017년 참여기업 수출 성과

(단위 : 개사, 천 원, 천 불, %)

지원기업 수	기업당 평균 지원액	수출 실적	수출 증가율	대중국 수출실적	대중국 수출 증가율
270	53,185	390,938	11.4	127,864	8.1

##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은 최근 4개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지방은 15% 이상)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기업을 발굴하여 자율 수출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738개 업체에 총 335억 원을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글로벌역량진단을 통해 핵심기술력 및 마케팅 역량에 대해 진단평가하고 직접 작성한 수출마케팅계획서를 발표·평가하여 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브랜드 개발, 온라인마케팅, 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등 수출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단계	지원영역	지원항목
I 단계 수출준비	개발·제작	수출브랜드 개발, 외국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카타로그, 모바일 웹·앱, 디자인 개발(카타로그, 브로셔, 포장지 등), 제품매뉴얼 제작, 상품페이지 제작, 외국어자료 통번역, 지재권등록, 정품인증, 해외규격획득 지원 등
	전략 컨설팅	1:1로드맵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 경영멘토링, 목표시장 수출전략(로드맵) 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 바이어 발굴, 법인설립 자문, 지재권 등록, 투자 유치지원,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 컨설팅 등
	교육	무역교육(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해외투자유치 관련 세무·회계 검토, 인증품질교육 등
II 단계 거래선발굴	홍보·광고/ 온·오프라인 마케팅	TV·신문·잡지·SNS 홍보, 사은품 제작, 기업홍보동영상제작, 광고제작, 흡소핑, PPL, 검색엔진마케팅, 온·오프라인매장 입점대행, 판촉전 등
	조사·정보	해외시장조사, 소비자리서치, 바이어발굴조사, 바이어DB 타깃 마케팅, 경쟁제품 시장 동향 조사,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원부자재공급선 조사 등
	전시회, 상담회, 바이어매칭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참가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매칭 상담회/세미나, 외국바이어 국내초청 연결/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마케팅대행,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제품 시연회, 신제품론칭쇼 등
III 단계 계약체결	계약 체결 전	국외기업(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 관세환급 컨설팅,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대행 등
	계약 체결 후	통관/선적 필요 서류, 결제 관련 서류, 수출물류, 무역자동화(전자무역 서비스) 사후관리(관세환급신청서 등) 대행 등
IV 단계 해외진출	해외 진출	해외진출자문, 해외투자환경조사 출장지원, 현지법인 및 공장 설립 등 맞춤형 지원, 해외 자본시장 상장 및 M&A 자문, 해외자문사 및 실사기관 발굴/활용 지원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738개의 우수한 고성장기업에 335억 원의 지원을 통해 2017년 참여기업의 1,296백만 불 수출실적 달성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여 내수기업 199개사 중 79개사의 첫 수출 성공을 도왔다.

고성장기업은 대내외적으로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지원에 힘쓰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정책융자인 고성장기업전용자금 604억 원을 122개사에 융자 지원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중소기업부 고성장기업 전용 R&D 61개사, 160억 원 연계지원 등 고성장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연계지원을 노력하였다.

구 분	실 적	비 고
수출액	1,296백만 불	586개사
첫 수출 성공	41%	내수기업 199개사 중 79개사
연계지원	122개사, 604억 원	자금 융자
	61개사, 160억 원	고성장기업 전용 R&D

### GMD(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사업

GMD(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사업은 민간 수출전문기업(Global Market Developer)이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수출 초보·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전 과정(수출준비→해외영업→수출)을 밀착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 수출성과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품목·유통채널 등 특성별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를 GMD로 선발하여 심층적이고 차별화된 통합지원을 통해 특정지역·품목에 편중된 중소·중견 수출구조를 신흥시장, 소비자, 온라인 등으로 다변화하고, 특히, 아프리카 등 특수지역 시장, 국제기구 조달시장, 현지 독립몰 등 그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부진했던 분야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2017년에는 신흥시장, 전자상거래, 해외 B2G 등 전문분야별 기존회사 GMD 및 창업 GMD 65개사를 선정하여 GMD를 통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수출 초보·유망 중소기업 423개사 매칭 완료 후 활발히 시장개척 활동을 진행 중이다.

(단위 : 개)

구분	신흥시장	전자상거래	유통회사	B2G	창업	계
GMD 수	34	9	5	6	11	65
승인 매칭기업 수	183	101	53	38	48	423

##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은 중기부, 지자체, kotra와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역사절단과 해외전시회 등을 지원하는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과 해외바이어의 인콰이어리 대응, 계약실무, 무역협상 등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글로벌바이어구매알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2009년부터 중진공은 해외마케팅 창구 단일화 조치에 따라 지역자치단체, kotra 등과 협력하여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해외전시회 25회, 무역사절단 129회, 수출상담회 4회, 지역특화해외마케팅 20회 등 총 178회 사업추진을 통해 1,586개사(유형 내 중복 참가업체는 1회 참가로 산정), 67백만 불 수출계약체결을 지원하였다.

#### '17년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상담 및 수출계약 성과

유형	실적		성과		
	횟수	참가 기업 수	상담 금액 (백만 불)	상담 횟 수	계약체결액 (백만 불)
해외전시회	25회	131개	169	2,830	6
무역사절단	129회	817개	2,406	15,351	36
수출상담회	4회	218개	21	470	-
지역특화마케팅	20회	420개	2,401	19,976	25
계	178회	1,586개	4,997	38,627	67

또한,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사업 참여기업의 40.9%인 648개사를 대상으로 중진공 자금, 연수, 건강진단 등 연계지원을 통해 수출실적을 제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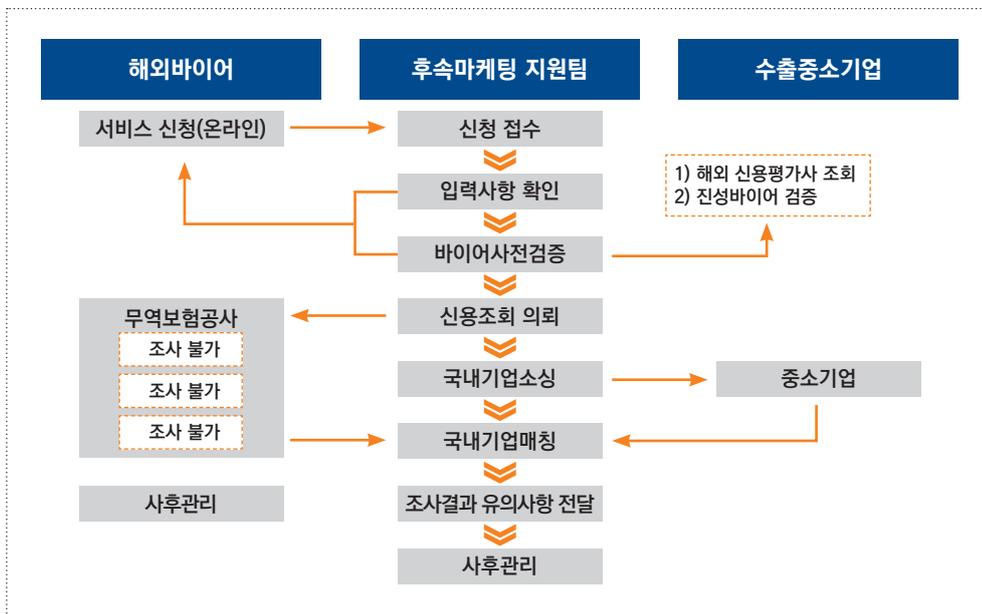
#### '17년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연계지원 실적

사업명	참가 업체 수(a)	지원 업체 수(b)	비율(b/a)	연계지원(건수)			
				정책 자금	연수	건강 진단	계
해외전시회	131	45	34.4	32	119	16	167
무역사절단	817	374	45.8	296	486	139	921
수출상담회	218	90	41.3	71	163	33	267
지역특화	420	139	33.1	123	169	62	354
계	1,586	648	40.9	522	937	250	1,709

## 2) 글로벌바이어구매알선

글로벌바이어구매알선 지원사업은 해외바이어의 유효한 구매오퍼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최적의 국내기업을 발굴·알선하여 해외바이어의 국내 업체 방문을 지원하는 등 집중적 사후관리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성사율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 해외바이어 알선지원 추진 절차도



글로벌바이어구매알선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17년 총 1,389개사 2,220건의 해외 바이어 알선지원을 통해 총 5,223만 불의 수출성약과 총 116개사 134건의 방한바이어 지원서비스를 통해 932만 불의 수출성약을 지원하였다.

### 글로벌바이어구매알선사업 지원실적

(단위 : US\$)

서비스명	지원건수	계약실적(A)	수출실적(B)	합계(C=A+B)
해외바이어알선(BMS)	2,220건	15,036,520.11	37,192,110.91	52,228,631.02
방한바이어지원(VAP)	134건	4,132,828.00	5,187,023.00	9,319,851.00

## 수출성공패키지

수출성공패키지사업은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수출 초보(내수기업~직수출 10만 불 미만) 및 수출 유망(직수출 10만 불 이상~100만 불 미만) 중소기업에게 기업별 역량에 따라 시장조사, 외국어 홍보·디자인 개발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패키지식’으로 지원하여 참여 중소기업들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고도화에 기여하고 있다.

###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추진절차



’96년 수출역량강화사업으로 시작된 본 사업은 ’17년부터 수출 바우처 시스템 안에서 ‘수출성공패키지’ 사업으로 탈바꿈 하였으며, 지난해 추경 포함 528억 원의 예산으로 2,637개 참여기업에게 수출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 원~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17년 참여기업의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은 24.2%로 국가 전체 수출중소기업의 증가율인 6.6%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내수기업의 수출성공률은 39.1%로 국가 수출실적 증대와 수출 초보기업들의 역량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17년 지원기업(2,637개사) 수출액(백만\$)			
	2016년	2017년	증가율
	997	1,238	24.2%

## 중기제품거래촉진(HIT500)

HIT500이란 자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시장진입 초보 중소기업의 유망 제품을 발굴하여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마케팅과 판로지원을 통해 제품의 시장 인지도 제고 및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중기제품을 소비자 및 전문가 평가방식을 통해 선정한 후, 웹사이트 내 제품 홍보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전시장 구성, 소비자 평가와 제품 체험을 통한 입소문마케팅, 판로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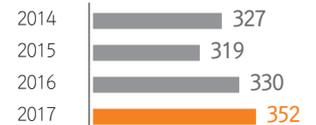


특히 2017년의 경우, 우수한 제품 발굴·홍보뿐만 아니라 '마케팅 교육', '민간대형유통망 입점 교육', '문제해결형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제품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였다.

HIT500사업에 선정된 유망제품은 국내 정책매장(행복한백화점, 아이쇼핑)과 온라인오픈마켓(쿠팡, 11번가 등)내 HIT500제품 특별판매기획관 운영 등 판매 지원을 통해 2017년 6,107백만 원의 신규 판매를 하는 등 내수 마케팅지원 사업으로써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 HIT500사업 선정실적

(단위: 개)



### HIT500사업 후속마케팅 성과

마케팅 교육

온라인 유통망 진출 전략



민간대형유통망 입점 교육

입점희망기업 역량 강화(입점 절차·노하우 등)



문제해결형 연수

전문가와 1:1 상품성 향상



## 중기제품 간접광고(PPL) 지원



중기제품 간접광고 지원사업은 자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며, 제품 노출효과가 높은 TV·웹 프로그램 간접광고(PPL)를 통해 중기제품의 인식개선 및 국내외 판로 확대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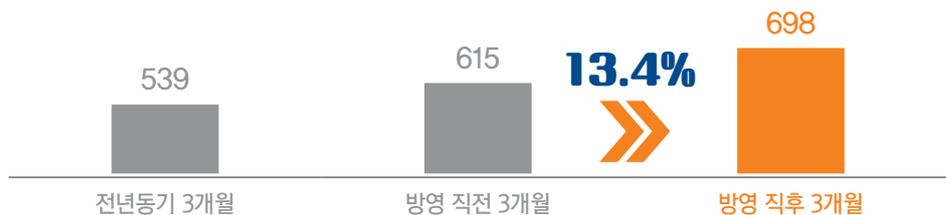
### 중기제품 간접광고 지원사업 추진 절차도



중기제품 간접광고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추진하여, 2017년 1년간 27개 TV·웹 프로그램에 160건의 PPL을 시행하여 소비자들의 인식개선을 유도하였다. 간접광고 지원사업에 선정된 제품은 제작사 간 시나리오 작업부터 촬영현장 대응까지 PPL을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PPL 전·후 3개월 광고 제품 매출이 평균 13.4%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 방영 직후 광고제품 매출 증가액 평균 8,300만 원

(단위 : 백만 원)



##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은 해외 현지에 지사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설립 초기의 위험을 경감해 주고 조기정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스스로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기업이 임차하기 어려운 12~20㎡ 규모의 독립된 사무공간을 저렴한 비용(1년차 기준 임차료의 80% 정부지원)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현지정착 지원, 바이어 및 시장정보 제공 등 마케팅 지원, 컨설팅 및 상담, 현지네트워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2017년 말 기준, 수출인큐베이터는 미국(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중국(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시안, 충칭), 일본(도쿄),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싱가포르(싱가포르),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인도(뉴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카자흐스탄(알마티), 칠레(산티아고), 태국(방콕), 미얀마(양곤) 등 주요 해외교역 중심국가에 설치·운영(14개국 22개소)중에 있다.

###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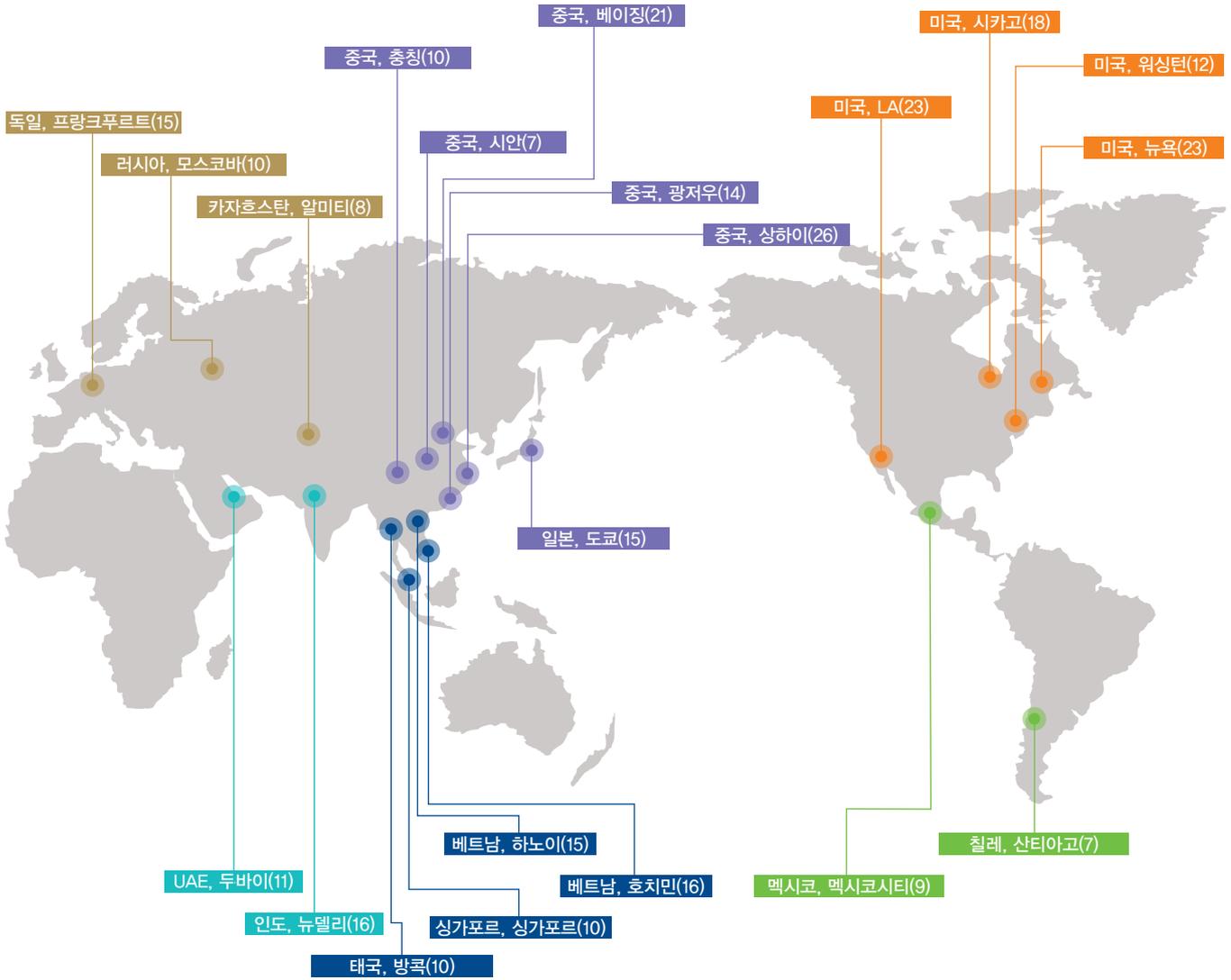
지역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러시아	UAE	인도	멕시코	카자흐스탄	칠레	태국	미얀마	계	
	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프랑크푸르트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시안	충칭	도쿄	호치민	하노이	싱가포르	모스크바	두바이	뉴델리	멕시코시티	알마티	산티아고	방콕		양곤
입주규모	18	23	12	23	15	21	14	26	7	10	15	16	15	10	10	11	16	9	8	7	10	10	306

2017년 입주업체의 총 수출실적은 약 6억 5,294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입주업체 성과분석 결과, 입주년도 대비 입주 후 1년도 평균 매출액은 25.1% 증가, 총 수출액은 20.9%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입주기업의 경영성과가 제고되었다. 또한, 수출인큐베이터사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99%에 이르는 등 입주기업에 대한 수출인큐베이터 지원성과 및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입주연도 대비 입주 1년 후 기업성과 평균치

구분	입주 연도(a)	입주 후 1년(b)	증가율(%) ((b-a)/a*100)
총 매출액 (억 원)	317.6	397.3	25.1%
수출상담 건수	127.1	140.3	10.4%
수출계약 건수	59.6	66.4	11.4%
수출대상 국가 수	13.7	15.4	12.4%
신규 바이어 발굴 건수	6.08	8.08	32.9%

\* 출처 :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한국국제경영학회, '17.12월)



## 해외산업협력 지원사업

### 가. 해외산업협력기반 구축

#### 1) 사업개요

중진공은 국내·외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유용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 정보 및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해외 45개국 77개 협력 네트워크와 중국 칭다오·미국 뉴저지 중소기업지원센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 2) 사업추진현황

2017년 한 해 동안 해외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MOU 체결(6개국 9개 기관), 산업협력관 교환(20개국 29명), 해외시장 진출환경 세미나(10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산업협력사절단, 국제회의 및 외빈 방한 지원 등 해외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사업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추진하였다.

### 2017년 해외협력기반 조성

구분	실적	비고
MOU 체결	9회	베트남, 캄보디아, 인니 등 6개국 9개 기관
산업협력관 교환	29명	카자흐스탄, 말련 등 20개국 29명 교환
해외진출 세미나 및 설명회	10회	글로벌기술포럼, 인니 진출 세미나 등 10회
산업협력사절단 교환	10회	말련, 중국, 태국 등 10회

특히, 6개 신흥국 정부·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및 산업협력사절 교환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다양한 정부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신흥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였고, VIP 인니 경제사절단에 참가하여 부대행사로 인니 중기부 등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국내 기업의 인니 진출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신흥국 정부를 대상으로 단순 원조방식을 벗어나 중장기적인 진출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전파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을 공공기관 최초로 해외(카자흐스탄)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 칭다오·미국 뉴저지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에서는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과제를 추진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였다.

중진공-말레이시아 SME Corp MOU 체결('17.6.1)



중진공-카자흐스탄 DAMU 기업진단기법 전수 수출협약('17.7.19)

중진공-카자흐스탄 DAMU 기업진단기법 전수 수출협약 체결식



### 2017년 해외거점 특성화 과제 추진

구분	특성화 과제	운영 성과
중국 칭다오 중소기업지원센터	한국 우수 중소기업상품전시관 입점업체 매칭상담회 및 전시관 활성화	• 매칭 상담회 5회 개최 • 중국 내수시장 수출 505천 불 달성 지원
미국 뉴저지 중소기업지원센터	빅 바이어 대상 직접 상담 지원	• 빅 바이어 미팅 42건 지원 • 수출 499천불 달성 지원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인도네시아 투자사절단 및 현지화 지원	• 인니 투자진출 정보 및 파트너 발굴 등 10개사 지원 • 인니 현지 투자진출 희망 3개사 밀착 지원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	APEC B2B 사절단 지원	• 상담회 참가 현지 유망기업 모집 13개사 • 32개 협력선 알선

## 나.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

### 1) 사업개요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는 제12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2005) 공동선언을 통해 설립제안이 채택되었으며, 2006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내 최초 설립되었다가 2009년 중진공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은 APEC 역내 회원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시키고, 21개 회원국과 구축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및 산업협력 기회 창출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

### 2) 사업추진현황

2017년은 APEC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을 목표로 역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국내 중소기업의 APEC 시장 진출 지원에 힘썼다.

특히, APEC 프로젝트 기금을 3년 연속 획득하였으며, '16년에 확보한 기금(96천 불)을 활용하여 「APEC 여성기업 리더스 포럼」을 '제4차 산업혁명과 여성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여성기업인의 역할 변화 및 중요성에 대한 공동인식 기반을 형성하고, APEC 여성기업인 및 정책입안자 간의 네트워크 확장, 여성기업인 성공사례, 지원정책 등의 공유를 통해 글로벌 여성기업인 육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17년에 확보한 APEC 기금(55천 불)을 활용, 「APEC 청년창업가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최를 통해 역내 청년창업가들이 글로벌 기업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의 우수 벤처기업 및 청년창업 지원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APEC 여성기업 리더스 포럼('17.11.9, 더케이호텔 서울) 수출협약('17.7.19)



아울러, APEC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기술진단 및 컨설팅, 혁신역량 강화 세미나를 추진 하였으며,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B2B 사절단 파견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였다. 또한,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및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하여 역내 회원국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정보 공유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2017년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운영 실적**

분야	세부사업명	실적
동반성장	APEC 여성기업 리더스 포럼	• 11개국 204명
	APEC 비즈니스 매칭상담회	• 국내 중소기업 12개사 지원 • 63건 수출상담, USD 39천 불 현지계약(6건), NDA(1건)
혁신역량 강화	APEC 혁신 컨설팅	• 5개국 25개사 • 컨설팅 결과 활용률 100%
	APEC 혁신 세미나	• 2개국 144명
정책전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및 실무그룹회의 참석	• 장관(1회), 실무그룹(2회)

■ APEC 혁신 컨설팅('17.11.20~24, 페루 MAMAZON ANDES EXPORT社) 수출협약('17.7.19)



■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17.9.15, 베트남 호치민)



## 해외지사화사업

해외지사화사업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진공에서 중기부 위탁으로 추진해 왔던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이 2017년도부터 산업부 위탁 '해외지사화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중진공, 코트라, OKTA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컨설팅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민간 컨설팅 기업을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2017년 총 48개국 125개사를 지정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과 해외투자 등을 위한 시장조사, 협력파트너 발굴, 계약체결을 위한 법률자문, 현지법인 설립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유통망을 확보하여 국제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중 사업은 기업의 해외진출 단계를 '진입', '발전', '확장'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필요한 서비스를 특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진입' 단계의 경우, 기초 시장조사, 수출 가능성 점검, 로컬마케팅 등 기초적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전' 단계의 경우,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출장지원, 물류통관 자문 등 수출 및 성약지원을, '확장' 단계의 경우, 기술수출,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등 기업의 타겟국가 현지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7년 중진공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한 실적은 총 474건으로, '진입' 174건, '발전' 109건, '확장' 191건이며, '17.12월 말 기준 수출실적 676백만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7년 사업이 2018년 7월에 종료됨에 따라 지원기업에 대한 수출성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6~'17년도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실적(누계)

지원기업 수



**3,994 개사**

투자유치 규모



**\$50,400,000**

수출실적



**\$5,665,000,000**

현지법인(지사) 설립 건수



**343**

기술협력 계약 체결 건수



**405**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실적('13~'17년)

구분	'13	'14	'15	'16	'17*
지원기업 수(건)	353	285	282	235	474
수출실적(백만 불)	565	449	279	272	(진행 중)
투자유치(백만 불)	1.2	0.33	14.01	13.1	(진행 중)
현지법인(지사)설립(건)	14	19	17	12	(진행 중)
기술협력 계약체결(건)	9	14	10	6	(진행 중)

\* ('17년도 사업기간) '17. 5월 ~ '18. 7월

## 해외기술교류사업

해외기술교류사업은 한국과 신흥국 정부 간(G2G) 협력을 통해 한국의 기술을 현지기업에 수출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기술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기술수출 유형에는 라이선스, 합작투자, OEM 생산, 설비이전 등이 있다.

중진공에서는 '17년 하반기부터 직접 사업을 수행하여, 각국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수요·공급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매칭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기술교류단의 현지파견 및 사후지원을 통해 기술수출을 촉진한다.

기술교류 대상 국가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페루 4개국으로 현지 여건, 기술수요, 정부기관의 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협력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현지에 기술교류센터 설치를 통해 기술교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태국 현지 기술코디네이터 양성교육('17.7.31~8.2, 태국 방콕)



한·인도 기술교류 상담회 ('17.12.5, 인도 뉴델리)



'17년은 기술수출 DB와 사업지원 인력 Pool 구성 등의 사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대상국가와는 협력관계 설정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술수출이 가능한 공급기술 200건을 확보하였으며, 인력은 기술진단에서 협상, 사후관리 등 기술교류 전 과정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국내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35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대 정부기관과의 요청에 의해 태국 20명, 페루 14명의 현지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에 대한 양성교육도 실시하였다.

국가별 기술교류 유망산업을 지정한 후 관련 기술을 발굴하여 총 4회 기술교류단을 파견하였다. 참가기업은 22개사이며, 121개 현지기업을 만나 MOU 15건, NDA 2건을 체결하는 등 기술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기존 제품 수출에 의존하던 중소기업에게는 기술수출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였다.

### 2017년 기술교류단 운영 실적

국가	회차	유망산업	한국기업	해외기업	상담	방문	MOU	NDA
태국	1	화장품 · 뿌리 · 기계	7	46	45	12	4	-
	2	IT · 게임	4	13	21	6	5	2
말련	1	LED · 화장품 · 기계	5	24	25	23	2	-
인도	1	LED · 태양광 · 자동차부품	6	38	49	10	4	-
합 계			22	121	140	51	15	2

## 해외유통망진출지원

해외유통망진출지원사업은 해외 유수의 유통망에 B2C(소비재) 위주의 중소기업제품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미흡하고,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자력으로 해외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중진공에서 해외진출 관련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유통망진출이 유망한 중소기업 우수제품(Made in Korea)에 대해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외유통망진출지원사업은 국내생산 우수제품의 DB를 구축한 후 해외 바이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진출 상품의 현지화를 위한 코칭·실행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해외 물류 및 A/S센터 운영, 해외전시판매장 운영, 글로벌유통망 소싱페어, 현지진출 프로모션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유통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 및 현지 유통망과 연계하는 안테나숍 역할을 하는 해외전시판매장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 3개국 4개소에 설치·운영되어 2017년 누적 총 1,010개사 7,649개 품목 입점을 지원하였다.

### 해외전시판매장

(2017.12월 기준)

<p><b>LA</b> '13.11</p> <p>LA Beverly Hills 지역 <b>254㎡</b></p> <p>402개사 725개</p>	<p><b>선양</b> '16.05</p> <p>서탑가 오렌지아울렛 <b>280㎡</b></p> <p>75개사 600개</p>	<p><b>싱가포르</b> '17.08</p> <p>주룽지역 Big Box 2층 <b>378㎡</b></p> <p>322개사 4,710개</p>	<p><b>충칭</b> '17.09</p> <p>따핑지역 용호시대천가쇼핑몰 B관 <b>652㎡</b></p> <p>211개사 1,614개</p>
--	--	--	--

글로벌유통망 소싱페어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및 수출확대를 위하여 글로벌 온·오프라인 유통 바이어와의 구매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유통망 판로 개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하여 총 21개국 95개사 바이어를 초청하여 1,110만 불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계약액 중 870만 불의 거래가 성사되었다.

2013년 사업시행 후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기반 구축 시기를 거쳐 2017년도에는 중소기업 상품 소싱시스템 개편, 사업 및 수행기관, 해외전시판매장 신규 개소(충칭, 싱가포르) 및 관리체계 개편 등 사업체계 고도화를 통하여 매출 및 글로벌화 진출 성과 확대를 이루었다.

## 온라인수출지원

온라인수출지원(Gobizkorea)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지원을 위하여 상품페이지 제작을 통한 온라인수출관패키지,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및 검색엔진 마케팅과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마케팅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 1)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 및 상품페이지 제작, 무료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Gobizkorea(www.gobizkorea.com)를 기반으로 50,140개사 199,430개 상품정보를 DB화하여 국내상품 소싱을 원하는 해외바이어와 국내기업 간의 해외거래 네트워크망 구축을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900개사의 상품페이지 제작과 100개사의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을 통해 총 21,512천 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 2) 해외 홍보마케팅 및 사후관리 지원

온라인 무역트렌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온라인 홍보마케팅과 글로벌마케팅 교육, 수출상담회도 진행하였다. 구글, 야후 등 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해외 유명 포털사이트에 검색엔진최적화(SEO) 방식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홈페이지를 상위노출시킴으로써 신규바이어를 발굴하는 검색엔진마케팅 지원사업을 80개사에게 지원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중국시장 타겟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하여 바이어 맞춤정보를 현지어로 제공하는 온라인수출관에 중국관을 신규 추가 구축하여 총 9개관을 구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중국시장 공략에 나섰다.

아울러, 고비즈코리아 등을 통해 내도하는 해외바이어의 구매오퍼 대응 애로 해결을 위해 「인콰이터리 검증 ⇨ 對 바이어 협상 ⇨ 수출계약 체결 ⇨ 사후관리」까지 무역 순 단계를 지원하는 구매오퍼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총 10,010건의 사후관리 실적을 달성하였다.

온라인수출관패키지와 구매오퍼 사후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여 2017년 총 4,385만 불의 수출을 달성하였다.

#### 고비즈코리아(중국어)



### 2017년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지원실적

세부사업명	실적(건수)	수출실적(US 천 불)
온라인수출관패키지	900	20,923
검색엔진마케팅(패키지)	80	1,539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100	589
구매오퍼 사후관리	10,010	20,806
합계	11,090	43,857

##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지원

해외온라인쇼핑몰(B2C) 판매대행 사업은 아마존, 큐텐 등 세계 유명 글로벌 오픈마켓에 B2C(소비재) 위주의 중소기업제품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브랜드 인지도가 미흡한 중소기업이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교역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글로벌 오픈마켓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동 사업은 외국어 인력과 인프라의 부족으로 글로벌 쇼핑몰 진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쇼핑몰 입점부터 판매, 배송까지 일괄 지원한다. 최종적으로는 상품컨설팅, 해외 물류 및 A/S센터 운영, 고객 C/S,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업 참여기업이 글로벌 오픈마켓에 진출하여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 2017년 해외온라인쇼핑몰(B2C) 판매대행사업 지원실적

(2017.12.31일 기준, USD=1,161.11원)

구분	계약	상품등록		성과		
		기업 수	제품 수	판매건(개)	판매액 (USD 천 달러)	판매액 (백만 원)
라쿠텐	217	191	924	112,919	3,414	3,964
아마존	420	385	1,644	4,277,568	9,340	10,844
이베이	223	189	823	226,005	2,519	2,925
큐텐	231	223	1,006	456,490	5,575	6,473
타오바오	204	199	926	216,313	3,686	4,280
라자다	70	70	355	79,240	1,169	1,358
위챗	123	118	541	431,326	1,855	2,154
합계	1,488	1,375	6,219	5,799,861	27,558	31,998

2017년도에는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추가, 프로모션 진행 등 사업체계 고도화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이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488개사 기업이 6,219개 제품의 상품페이지 제작 및 번역, 쇼핑몰 등록을 진행하여 총 27,558천 불(320억 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 추세 반영 및 온라인 생태계 조성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온라인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파워셀러 육성」사업을 수행하였다. 2017년은 온라인 창업 희망자 5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쇼핑몰 창업부터 판매·운영교육, 글로벌 쇼핑몰 관계자와의 매칭상담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대상 인원을 1,400명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오픈마켓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인력양성

### 사업개요

인력양성은 우수인재의 양성·유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식개선», 「인력양성», 「연수», 「성과보상공제기금」 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사업

구분	인식개선		인력양성	연수	성과보상공제기금
	중소기업 인식개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사업목적	구직자 인식개선	우수중소기업 발굴·지정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중기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우수인력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주요 내용	대국민홍보, 교육 및 체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홍보	맞춤형 인력 양성·공급	단기 집합연수 이러닝연수	성과보상금 형태의 공제기금 운영

1982년 중소기업 연수원(경기도 안산) 개원을 통해 연수사업으로 시작한 인력양성사업은 2014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인력양성사업을 이관받고, 동 시기 성과보상공제기금의 출범을 통해 “인력유입”부터 “장기 재직”에 이르는 “중소기업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을 완성하였다.

### 중소기업 인력양성 플랫폼

인력유입	인력양성	장기 재직
중소기업 인력유입 지원	직무능력 강화	우수인력 장기 재직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특성화고, 기술사관 육성</li> <li>산학맞춤 기술·기능인력 양성</li> <li>중소기업계약학과</li> <li>인식개선/인재육성형 중소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수사업(5개 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무능력 향상연수(On-Offline)</li> <li>기업별 맞춤·현장연수</li> <li>정책연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일채움공제</li> <li>청년내일채움공제</li> <li>중소기업 계약학과</li> </ul>

특히 5개 연수원을 거점으로 한 광역별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 31개 지역본·지부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접점에서 맞춤형 인력 지원과 현장 인력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사업) 간 연계지원을 통해 정책사업 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 중소기업연수원 현황

구분	중소기업연수원	호남연수원	대구경북연수원	부산경남연수원	글로벌리더십연수원
개원	1982년	2001년	2003년	2004년	2014년
위치	경기 안산시	광주광역시	경북 경산시	경남 창원시	강원 태백시

### 2017년 정책(사업) 연계지원 연수현황

과정명	Pre-School	재창업기업 CEO 역량강화	스마트공장 핵심인력양성	유통망 진출지원
정책(사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스마트공장 확산·보급	HIT 500
관련 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산업통상자원부 (민·관합동추진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교육 인원	3,235명	345명	1,246명	811명

인식개선분야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21,450명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376개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홍보 및 채용연계를 지원하였다.

##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인력양성분야는 중소기업특성화고, 기술사관 육성 및, 산학맞춤 기술·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총 20,131명(사업기간 : '17.3~'18.2)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17개 중소기업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연수분야는 5개 연수원을 통해 '17년 46,190명, 누적 인원 140만 명의 연수인원 달성을 하였으며, 「스마트공장 민·관합동 추진단」의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핵심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 총 6,272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반을 마련하였다.

성과보상공제기금은 2017년 말 현재 누적 기준 70,159명의 공제 가입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공(대)기업 및 지자체들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지역균형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하였다.

또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및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제 가입자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 다변화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제 가입확대 저변을 확충하였다.

기업인력애로센터는 '17년 3월 전국 16개 지역본부에 개소하여 '17년 12월까지 1,430개 구인애로기업 발굴, 1,048명의 일자리 매칭 성과를 달성하였다.

세부사업 추진실적

연수사업

1982년 중소기업연수원(본원 안산) 개원을 시작으로 호남연수원(2001년, 광주), 대구경북연수원(2003년, 경산), 부산경남연수원(2004년, 창원), 글로벌리더십연수원(2014년, 태백) 등 5개의 지방연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난 35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교육을 선도하여 총 140만여 명 대상에게 연수를 실시하였다.

2017년에는 46,190명의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중소기업연수원(안산) 35,529명, 지방연수원(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글로벌리더십)은 10,661명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비를 활용한 실험·실습 중심의 기술연수를 강화하고 교육 니즈가 높은 뿌리기술(주조, 금형, 열처리 등) 분야 교육을 확대 운영하였다. 또한, 현장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결합한 기술에듀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기술과정을 확대하여 인력부족으로 연수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교육접근성을 제고하였다.

2017년 연수실적

(단위: 명, %)

과정	'16년 실적	'17년		
		계획(A)	실적(B)	달성률(B/A)
• 직무역량향상연수	18,895	17,334	18,756	108.2
• 정책연수	10,309	8,700	11,541	132.7
• 중기지원정책	5,131	5,388	5,143	95.5
• 수출교육	533	650	-	-
• 취업연계연수	3,165	2,430	4,789	197.1
• 기타(산학협력 등)	1,480	232	1,609	693.5
• 원격연수	19,078	12,000	15,893	132.4
	48,282	38,034	46,190	121.4
• 맞춤연수*	461개사	-	407개사	
	7,131명		4,837명	

\* 2014년부터 맞춤연수는 업체 수로 실적 산정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원을 위해 2017년 10월 스마트공장 실습장비 “러닝팩토리”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12월에는 전용 교육장 “넥스트스퀘어”를 개소하여 중소기업 제조현장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교육기반을 완성하였다.

또한, 스마트공장 특화 연수원인 충청연수원 건립 예산 352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권역별 교육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연수고객 방문마케팅 및 연수과정 미스터리 쇼핑 실시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과정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연수종료 후에는 고객의 목소리(VOC)를 상시 수집하여 연수과정에 반영하는 등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연수원(안산) 및 지방연수원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HRD지원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객의 목소리를 수집·공유하고, 연수사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직무역량향상연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지식획득 정도와 현장실무 적용도를 파악하기 위한 “학습성취도 조사”를 실시하고 과정내용 개선에 활용하는 등 더욱 내실 있는 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란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직원에게 보상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스스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을 완화할 목적으로 201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기업에 대해 ① 서면평가, ② 현장평가, ③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있으며, 2017년도 376개사를 지정,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853개사가 지정되었다. 지정기업에 대해서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홍보동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취업포털에 온라인 전용채용관 운영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인재육성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인재육성형 중소기업전용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등 정책연계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업 (2017년도 지정기업 기준)

지역별 현황

경기	충남	경북	충남	부산	대전	전북	충북	광주	인천	대구	전남	울진	제주	계			
95	67	28	15	21	25	9	9	15	14	15	16	19	12	8	5	3	376

종업원 수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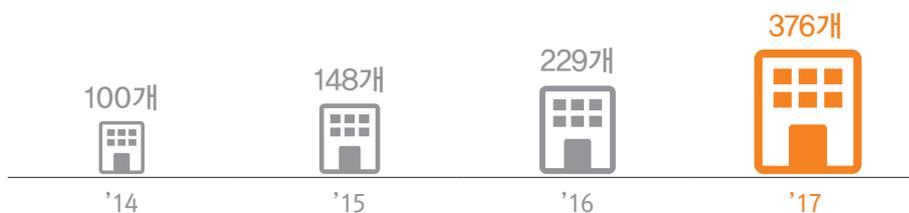
10인 미만	10~30인 미만	30~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계
17	96	96	105	56	6	376

매출액 규모별 현황

10억 미만	10~50억 미만	50~100억 미만	100~300억 미만	300~500억 미만	500억 이상	계
5	82	96	141	29	23	376

### 연간지정기업 수

(단위: 기업 수)



## 중소기업 인식개선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은 학생 및 국민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 중소기업 취업의사를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이 유입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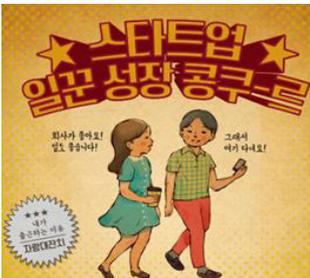
2017년도 한해 중학생, 특성화고등학생 및 학부모, 특성화고 교사 등 356개교 21,450명에게 '중소기업 바로알기' 교육제공 및 지역우수중소기업 탐방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자유학기제 중학생 278개교 11,279명에게 중소기업 체험 및 중소기업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찾아가 지역 우수중소기업에 취업한 선배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13회 개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는 '연극연습' 프로그램을 27회 추진하였다.

또한, 특성화고 자녀를 둔 학부모 835명을 학교에 초청, 중소기업 바로알기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녀들에게 균형 잡힌 진로설계 코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추진실적

공모전 참여홍보 포스터



공모전 최우수작(업체명:무아)



청년채용페스티벌(5,23, 연세대)



사업 추진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프로그램 참여 후 중소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 비율이 감소하였다(23%→4%), 학부모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인식 또한 감소(39%→3%)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스타트업(start-up) 취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스타트업취업인식개선 공모전>을 운영하였다. 스타트업 우수 취업사례, 근무경험을 주제로 UCC, 웹툰, 수기 형태로 공모하여 전문평가단 심사와 현장투표를 통해 총 9팀을 선정하였다. 또한 청년채용페스티벌을 개최, 유망한 스타트업 101개사를 초청, 청년구직자에게 현장면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인-구직자 간 정보의 미스매치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단위 : 개, 명)

대상	프로그램	학교 수	학생 수
중학생	교육/기업탐방	278	11,279
특성화고 학생	토크콘서트	13	7,663
	연극지도	27	1,673
학생 계		318	20,615
특성화고 학부모	인식개선 교육	38	835
총합계		356	21,450

## 사업주 근로자 성과공유 확산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및 일자리 질 개선→우수인력 유입→기업성장의 선순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사업을 추진하였다.

성과공유제란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거나 향후 도입하기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약(약정)하는 제도이다.

사업기반 구축을 위해 성과공유를 정의 및 유형화하고, 성과공유 수준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성과공유도입을 위한 매뉴얼 및 표준성과공유 협약서 개발 등 성과공유 지원을 위한 기초체계를 마련하였다.

중소기업 내 성과공유 도입 의지 제고를 위해 CEO 맞춤형 '성과공유교육과정'을 개발, CEO 및 임원 1,702명 대상으로 집합 및 지방 순회교육을 28회 실시하였다.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성과공유 도입을 유도하고자 사업주와 근로자가 SNS(페이스북)에서 자사의 성과공유 계획을 공개 선언하는 성과공유 확산캠페인(함께성장 챌린지)을 전개하였다.

캠페인 참여안내 영상을 제작하고 대형포털사이트 및 SNS 네트워크에 전파하였으며 그 결과, 6개월간 170여 개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가 함께 S.N.S에서 자사의 성과공유 계획을 선언하였다.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를 실천하는 모범 중소기업인 11명을 <2017년도 미래를 이끄는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 성과공유 도입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제1회 함께성장 컨퍼런스'를 개최, 기업 CEO 및 청년구직자 350여 명을 초청하여 우수사례 공유, 토론 등 성과공유 정보교류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의 일자리 '기대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현재 성과공유제를 도입했거나 도입예정기업(미래성과공유기업)은 중소기업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우대 등 지원강화를 통해 성과공유 도입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기	사업	실적
'17.12	미래를 이끄는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선정 11명
'17.8~12	성과공유 확산 CEO교육	교육제공 1,702명(CEO, 임원, 근로자)
'17.6~12	함께성장 챌린지	성과공유 선언 퍼포먼스 153개사
'17.12.21	성과공유 컨퍼런스	참여자 CEO, 근로자, 구직자 등 349명

### 사업주 근로자 성과공유 확산 실적

성과공유 CEO 교육



함께성장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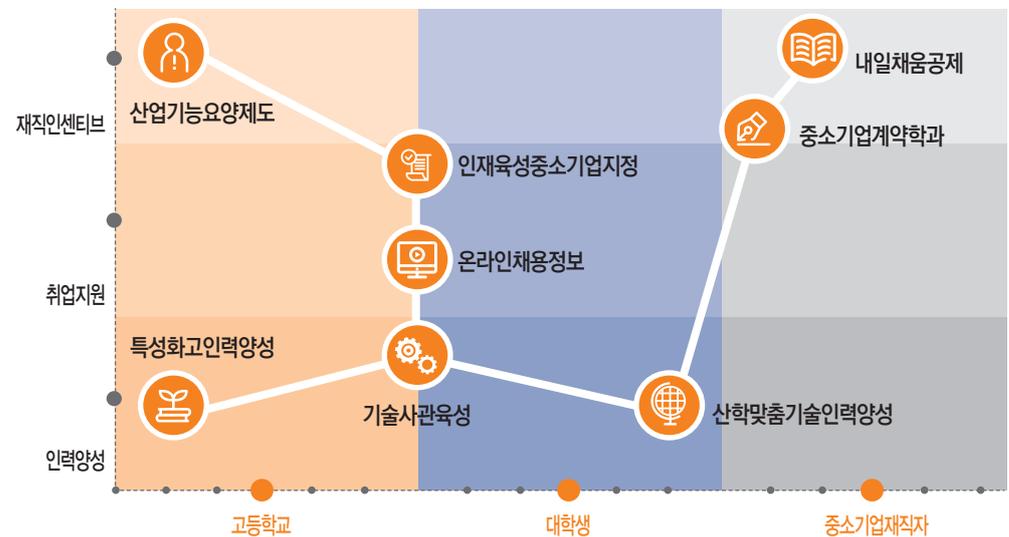
함께성장 챌린지



##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은 산학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현장중심 직업교육 지원과 특성화고·대학의 우수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선취업·후진학 기반 구축을 통한 일학습 병행 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에 적합한 우수인재 유입·양성·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체계도



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계약학과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구분되며,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2015년 4월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이관된 사업이다.

사업이관을 통해서 중진공 인력지원사업 목표인 「중소기업 인력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중진공 사업 간 유기적 연계로 채용부터 장기 재직 유도, 기업의 역량강화까지 중소기업 인력지원 체계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관 전 · 후 주요 개선실적**

구분	이관 전	이관 후
사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부서 중심의 업무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진공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li> <li>- 적극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한 능동적 사업 추진</li> <li>- 지역거점 활용한 사업 연계 및 확대</li> </ul>
사업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인력양성사업 개별수행</li> <li>- 사업별 방식, 매뉴얼 등 제각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효율성을 위한 통합 관리</li> <li>- 인력양성사업 발전방안 연구 추진</li> <li>- 체계적인 사업 DB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li> </ul>

2017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181개교의 특성화고를 지원하여 3학년 취업대상자 중 19,242명을 중소기업에 취업시켜 중소기업 취업률을 43.9%달성하였다. 이는 비지원 특성화고의 중소기업 취업률 23.3% 대비 20.6%p를 상회하는 결과로, 현장실습 관련 사회적 이슈 발생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의 성과를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017년도 사업별 주요 추진실적**

구분	추진 실적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181개 특성화고(3학년 취업대상자 수 43,874명)에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프로젝트 수업, 진로지도 및 연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평균 1.7억 내외 지원</li> </ul>
기술사관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개 사업단(2,335명)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4,627백만 원 지원 및 관리</li> </ul>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개 대학(791명)에 중소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공급을 위해 2,579백만 원 지원</li> </ul>
중소기업 계약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개 대학, 69개 계약학과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에게 학과 운영비 및 등록금 지원 (1,761명, 9,509백만 원 지원) 및 관리</li> <li>•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학위연계형 4개, 무역전문과과정 2개, 영마이스터형 2개 등 총 8개 학과 신설</li> </ul>

## 창업성공패키지

정부의 기술창업 촉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11년 경기 안산에 최초 개교하여 현재 충청(천안), 호남(광주), 대구경북(경산), 부산경남(창원)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실행 단계의 입교자에게 창업준비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코칭 및 교육 실시, 제품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등에 창업 순 과정에 소요되는 기술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 및 사업화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급진적인 기술의 발달과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화는 신속한 창업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를 날이 높여왔으며, 중진공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창업성공패키지로 확대 개편하여 사업의 지원 효율성 및 창업 성과를 제고하였다.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창업자 양성에 집중된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정책자금,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등 후속 연계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성과창출형 기업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지원체계

단계별	창업준비	창업실행	성장단계	안정화단계
주요내용	교육 및 사업계획검증	사업화	성장촉진 프로그램	사후관리
'16년	청년창업사관학교			
'17년	창업성공패키지(프리스쿨→청년창업사관학교→5년간 후속 연계지원)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첫 단계인 프리스쿨 심화과정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예비)창업자의 사관학교 입교 후 1년간 사업화 기간에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였다.

**창업성공패키지 프리스쿨 심화과정 주요 교육내용**



\* 프리스쿨 심화과정(2회) : 교육 수료자 194명 中 청년창업사관학교 7기 입교 125명

올해 신설된 가을학기제도는 기존 연 1회 이루어지던 정시모집을 연 2회(3월, 9월)로 추가 운영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망 CEO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 참여에 대한 장벽을 낮추었다.

\* 7기 가을학기 선발 50명, 사업비 4,045백만 원 지원

또한, 개발기간이 장기간(최대 2년) 소요되는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기반 마련을 위하여 2년 과정을 신설하고, 입교자의 창업 활동 결과를 사업비 배정 및 인센티브와 연계하고, 보완등급을 도입하여 창업자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였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창업 성과 검증체계 및 사업비 지원 방식**



'16년 도입 후 확대 운영 중인, 기술창업 스카우터는 전통적인 접수형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중진공에서 지정한 스카우터가 직접 고부가가치 기술 보유자와 우수인재(석·박사 및 교수, 연구원 등)를 직접, 상시 추천하는 발굴형 선발방식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으로 잠재력 있는 예비 창업자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기술창업 스카우터 확대 : '16년 39명→'17년 153명  
 \*\* 기술창업 스카우터 운영 : 총 2회 실시, 추천·발굴기업 147명→7기 79명 입교

그리고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기업에게는 청년전용창업자금 및 투융자 복합금융 등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지역중기수출마케팅 및 글로벌 크라우드펀딩(美 킥스타터) 등 마케팅·판로지원,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간접지원 등을 연계하는 성장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졸업기업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도모하였다.

### 창업성공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 및 운영 현황('17년)

프로그램	세부내용	지원현황
정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이익 및 성장 공유형 자금 등 연계	248건
마케팅·수출	우수신제품발굴지원(HIT 500), 지역중기수출마케팅, 해외멘토링 등	80건
투자유치	해외 IR, 클라우드 펀딩, VC, 엔젤투자 등 연계 지원	81건
기술개발	KIAT 및 기술정보진흥원 등 R&D 프로그램 연계	11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7년간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17년 졸업생 415명을 포함한 총 1,930명의 청년CEO 배출하고, 매출액 11,769억 원, 지적재산권 등록 4,167건, 일자리창출 4,617명의 지원성과를 거두었다.

###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자의 주요 경영성과

( '17년 10월 말 기준 누적성과)

구분	1기 ( '11)**	2기 ( '12)	3기 ( '13)	4기 ( '14)	5기 ( '15)	6기 ( '16)	7기 ( '17)	합계
졸업CEO(명)	212	213	254	284	252	300	415	1,930
매출액(억 원)*	2,000	3,936	1,841	2,470	719	514	289	11,769
고용인원(명)*	375	768	472	816	587	624	975	4,617
지 재 권(건)	271	616	753	1,014	591	482	440	4,167
투자유치(억 원)	83 (13개사)	271 (21개사)	61 (15개사)	313 (39개사)	38 (19개사)	43 (17개사)	55 (14개사)	864 (138개사)
수 출(천 달러)	24,021	7,819	6,542	20,697	2,155	2,587	1,345	65,166

\* 2~7기 : (고용인원) '17년 10월 말 기준 고용인원, (매출액) '17년 상반기 기준 누적매출액

\*\* 1기 : '16년말 조사 기준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및 잦은 이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4년도 8월에 출범하였다. 동 기금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시 공동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핵심인력(근로자)** 100% 납입 (월)

**중소기업(사업주)** 200% 이상 납입 (월)

**내일채움**

**만기재직(5년) 달성**  
근로자 납입금+기업 납입금 + 만기이자(전액 수령)

- **가입대상:** 중소(중견)기업 + 핵심인력  
- 중소기업은 中企인력지원특별법 상 지원업종 영위업체  
- 핵심인력은 대표자가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가입기간:** 5년(최초 가입 시), 3~5년(재가입 시)
- **가입금액:** 5년간 최소 2,000만 원 이상  
『핵심인력 : 중소기업 = 1: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공제금리:** 연 복리이자(분기단위 변동금리)

2016년에는 내일채움공제와 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를 연계한 신규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청년취업에서 장기 재직까지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미취업청년과 사업주, 정부가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900만 원을 적립하여 만기 재직 시 근로자에게 1,600만 원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900만 원 취업지원금

**기업** 400만 원 기업 기여금

**청년** 300만 원 본인적립금

**2년 만기 시 1,600만 원 + α(이자)**

- **가입대상:** 중소(중견)기업 + 청년근로자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청년) 만 15세 ~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정부취업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가입기간:** 2년
- **가입금액:** 청년 3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900만 원 정액 납부
- **공제금리:** 연 복리이자(분기단위 변동금리)

출범 후 2017년 말까지 성과보상공제(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28,377개사 70,159명(누적기준)이 가입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 2017년 공제가입실적

구분	업체 수(개사)		가입자 수(명)		부금납입액(백만 원)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누적
내일채움공제	4,337	10,420	9,619	26,813	86,987	179,598
청년내일채움공제	18,467	19,028	41,335	43,346	67,242	68,152

#### 중진공-CJ제일제당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한편, 공(대)기업, 지자체들과 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한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지역균형 일자리 창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였다. 2017년도에 강원도 781명, 대전시 198명, LH 193명, CJ제일제당 10명 등 공(대)기업 5곳과 지자체 3곳이 협력사 및 관내 중소기업의 공제 납입금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지자체 16곳, 대학 2곳과 협약체결을 통해 총 1,601명의 청년에 인턴, 복지지원금 등을 지원하였다.

### 2017년 공기업·지자체와 내일채움공제 간 연계 협업 실적

구분	협력사 업체 수	지원 인원 수	지원액(백만원)	비고
한국남동발전	10	25	150	인당 月 10만 원*60개월
한국서부발전	17	28	168	
한국전력공사	10	29	420	인당 月 12~40만 원*60개월
CJ제일제당	5	10	72	인당 月 12만 원*60개월
한국토지주택공사	28	193	1,158	인당 月 10만 원*60개월
강원도	159	781	8,172	인당 月 10~20만 원*60개월
대전시	89	198	1,782	인당 月 15만 원*60개월
산청군	6	15	108	인당 月 12만 원*60개월

#### 가입자 가족참여 힐링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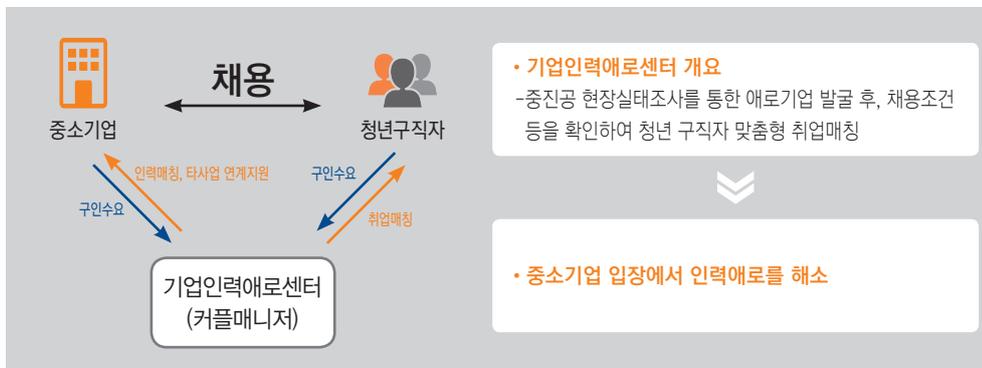
아울러,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및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품 매력도를 향상시켰다. 복지부분은 공제계약대출을 확대하고, 공제가입 후 25개월 이상 가입 유지 중인 가입자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공제 가입자 대상 특화 집합교육을 신규로 실시하였으며, 가입자 가족참여 힐링캠프를 운영하여 공제 가입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를 기존 중진공 현장 접점조직(지역본·지부)에서 추가로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등 민간 전문기관으로 다변화하였다. 향후 우량고객 발굴이 가능한 금융기관으로 가입창구를 추가 확대하여 고객의 접근성 개선 및 이용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참여대상을 기존 취업인턴제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강소기업, 워크넷 알선 등으로 다양화하여 보다 많은 청년에게 참여혜택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앞으로도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한 저변확대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청년과 핵심인력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기업인력애로센터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인력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One-Stop 지원체계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구인애로기업을 발굴하고, 채용조건 등을 확인하여 특성화고, 전문대, 직업전문학교 졸업생 등의 구직자에 맞춤형 취업매칭을 진행한다. 동 사업은 '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전국 16개 기업인력애로센터가 개소되었으며, 상시적으로 인력애로를 접수하여 실시간 일자리 매칭을 주목적으로 한다.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17년 구인애로기업 1,430개사를 발굴하였으며, 1,048명의 취업매칭 실적을 달성하였다. '18년부터 구직대상자를 대학 졸업생, 군장병, 미취업청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우수중소기업 발굴 및 검증된 구직인력공급을 통하여 청년실업문제 및 중소기업인력부족 현상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기술지원 및 현장애로 해결

### 사업개요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기술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로 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 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체 컨설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을 위해 전문가 풀 확보와 과제 선정 및 수행계획 평가, 완료점검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기정원과 정부 컨설팅 지원사업의 사업운영 단일화로 지원체계를 효율화하였다. 지원사업은 기술·경영, 특화형, R&D 사업계획, 원스톱 창업지원 분야로 구분되며, 정부지원금은 30~90% 비율로 최대 30백만 원까지 과제 규모에 따라 지원된다. 선정평가와 수행계획 평가를 거쳐 대상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있다. 2017년에는 1,441개 기업에 중소기업 컨설팅 111.48억 원, 4개 컨설팅 대학원(한성대, 금오공대, 한양대, 대전대)을 지정 운영하여 16.25억 원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은 기술개발 후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및 사업화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공모접수와 함께 정부부처·공공기관의 R&D 사업 성공판정 이후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을 추천받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 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과 맞춤형 사업화 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경륜·경정법 및 산업발전법에 의거,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어, 지원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기술개발” 부문은 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이며, “맞춤형 사업화” 부문은 R&D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사업화 진단과 기획을 통한 시장검증 또는 비즈니스모델(BM) 개발 등의 사업화 지원 과제이다.

### '17년 사업 규모 및 지원 내용

'17년 예산		2,524백만 원
기술 개발	지원기간	· 자전거산업 분야 : 2년 이내 · 해양레저장비산업 분야 : 3년 이내
	지원한도	· 자전거산업 분야 : 연 2억 원 이내(과제당 총 3억 원 이내) · 해양레저장비산업 분야 : 연 3억 원 이내(과제당 총 8억 원 이내)
	지원비율	· 총 개발사업비의 75% 이내(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맞춤형 사업화	지원기간	· 당해년도
	지원한도	· 시장검증 4,900만원 · 비즈니스모델 개발 3,500만 원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신청 및 지원기업 先 선정 후 컨설팅사를 後 매칭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사업신청서를 간소화(25p→5p)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구분	기존('16)	변경('17)	개선
신청방식	• 중소기업+컨설팅사	• 중소기업 단독신청	• 선정기일 단축 (22일, 전년대비 8일 ↓)
신청서	• 25page	• 5page	
선정방식	• 사전진단평가	• 서면평가(위원회)	

컨설팅지원사업은 기업의 문제해결을 통한 장·단기 성과 창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컨설팅 수진 전·후 및 컨설팅 비수진기업과의 비교에서 모두 높은 경영성과를 창출하였다.

(단위 : %, 백만원)

구분	단기성과				구분	장기성과			
	공정 불량률	제조 원가율	생산납기 준수율	인당 생산성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비용 감소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컨설팅 전	3.29	68.59	89.82	192.96	비수진기업	2.78	5.21	40.83	45.80
컨설팅 후	1.81	65.09	93.71	211.10	수진기업	18.00	24.73	3.47	10.90
증감	Δ1.48	Δ3.50	3.89	18.14	증감	15.22	19.52	4.30	16.70

\* 자료출처 :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성과분석 보고서('17.5, ㈜리서치랩)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은 사업화지원을 사업화 추진 유형에 맞게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높은 지원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사업화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술 사업화 진단을 확대하고 사업화 연계를 위한 코칭을 신설 운영하였다.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사업 업무 개선**

'16년		'17년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추진 유형 분류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추진 유형 분류 + 연계지원 수요조사
기술사업화 기획	사업화 추진 로드맵 수립	기술사업화 기획	사업화 추진 로드맵 수립 + 연계지원 코칭
제품화 지원	시제품 제작, 마케팅, 홍보 등	사업화 지원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은 지원과제에 대한 정량적인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특허 등록 및 출원건수' 및 '시제품출시 건수'를 기술개발 부문의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며, '지원금액 대비 신규매출액'을 '17년 신규 도입한 맞춤형사업화 부문의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허등록 및 출원 6.5건, 시제품 출시 9건, 지원금액 대비 신규매출액 15.3%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 세부사업 추진실적

### 컨설팅 전

KPI 목표 설정  
(73개→142개)



### 컨설팅 후

목표 대비 KPI 달성도  
점검성과 이력관리



### 후속지원

- ① 정책사업 연계지원
- ② 추가 컨설팅 계획 수립

##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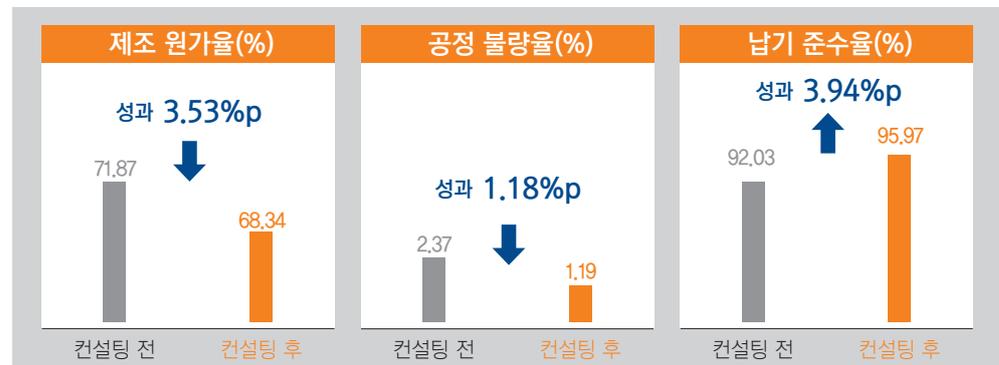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특성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7년에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단독신청 방식 도입과 사업신청서 간소화(25p→5p), 컨설턴트 상세정보 검색 기능 제공(13개 분야 1,921명)으로 기업 편의성을 제고하고 컨설팅 수진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20회, 513개사 수료)을 도입하였다.

2017년 사업추진을 통해 총 1,441개 기업을 선정하여 111.4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체계적 경영관리, 불량률 감소, 생산성 향상 등 높은 컨설팅 지원성과를 창출하였다. 컨설팅 주요 성과지표(142개 KPI) 도입과 연계지원 DB(49개 사업) 구축으로 성과측정의 계량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타 정책사업 연계 등 컨설팅 후 정책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수립하였다.

정부 R&D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지원하는 ‘R&D사업계획 컨설팅’ 신규 추진(882개사)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도과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중소기업의 실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기술컨설팅 예산을 통합운영하고, 정책목적성 강화를 위해 최근 산업트렌드인 ‘新서비스분야’, ‘미래성장산업’ 분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화형 컨설팅(42건)을 추진하였다. 특화형 컨설팅은 업력 7년 이내 업력제한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컨설팅 대학원을 통해 컨설팅 전문인력으로 석사 89명, 박사 47명을 양성하고 컨설팅 교재 및 방법론 22건을 개발하여 컨설팅 기반강화를 통한 컨설팅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 컨설팅 지원성과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은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 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목적이 있다.

동 사업의 기술개발 부문은 자전거·해양 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동 산업 전문가의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특히, 기술개발 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기술개발 성공에 기여하고 있다.

'17년도에는 총 40개 업체가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이중 4개 업체를 신규로 선정하여 10: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계속과제 포함, 총 1,650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지원과제에 대한 정량적인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특허 등록 및 출원 건수' 및 '시제품출시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허등록 및 출원 6.5건, 시제품 출시 9건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맞춤형 사업화 부문은 정부 R&D 과제 성공 후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사업화 진단, 기획 및 코칭을 통하여 시장검증 또는 비즈니스모델(BM) 개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17년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사업화의 성과지표는 지원금액 대비 신규매출액(%)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7년도의 성과는 15.3%로 목표대비 102%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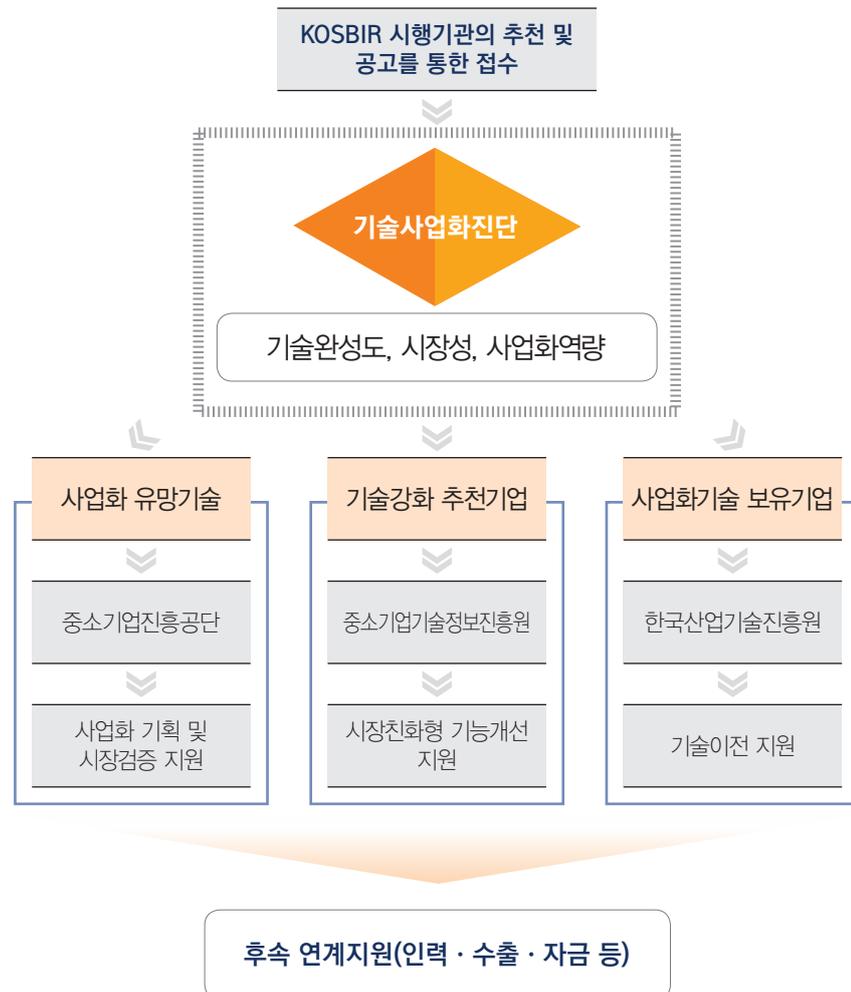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은 기술개발 완료 후 사업화되지 못한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지원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정부 R&D 투자효율 개선 및 중소기업의 신규 매출을 창출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정부 R&D 성공기술 및 특허등록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이며, 최종 선정기업에게는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2017년에는 공모접수와 KOSBIR\* 시행기관을 통한 정부부처 R&D 성공판정 중소기업을 추천받아 지원하였으며, 대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화 추진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권장하는 제도

### 기술사업화 추진 지원체계



기술사업화 진단 312개사, 사업화 기획 75개사, 시장검증 지원 36개사 2,264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장검증 지원 후 신규매출 619백만 원을 창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31개사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을 지원하였다.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주요성과**

구분	접수	기술사업화 진단	기술사업화 기획	사업화 지원	
				시장 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실적(개수)	414	312	75	36	31

시장검증 지원 36개사 중 10개사에서 신규 매출 619백만 원을 창출하여 높은 지원성과를 창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계지원으로 사업화성공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재기컨설팅 지원사업**

**가.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사업**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사업은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기업에 대해 전문가 심층 진단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진로를 제시하는 사업이다.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정리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퇴출을 유도하여 시장 내 명맥만 유지하는 ‘좀비기업’의 양산을 막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조기진입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2017년에 10억 원 예산으로 총 403개 기업에 대해 진로제시컨설팅을 지원하였다. 403개 지원기업 중 62개사에 “회생컨설팅 지원” 처방을 하였으며 54개사에는 사업정리 안내, 나머지 287개사에는 “구조개선” 판정으로 수출마케팅, 워크아웃, 자금 등 지원정책을 연계하고 있다.

**2017년 진로제시컨설팅 처방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회생컨설팅 지원	사업정리	구조개선 등	합계
지원기업	62	54	287	403

## 나.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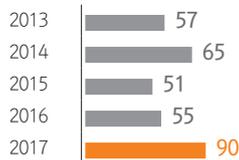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은 법원 회생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나 회생절차 비용조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회생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원 조사위원 경험을 보유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 전문컨설턴트를 통해 법원 회생개시신청서 작성, 조사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등 회생절차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2013년 57개사, 2014년 65개사, 2015년 51개사, 2016년 55개사, 2017년 90개사 등 총 318개 기업을 지원결정했으며, 법원 회생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회생인가율을 제고하고 있다.

2017년 중 회생컨설팅 완료기업 39개사 중 33개사의 경우 회생인가결정이 완료되어, 84.6%의 인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비교 가능한 지표인 최근 5년간 법원의 회생인가율 통계수치(29.2%)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역량이 우수한 컨설턴트를 선정·관리하고 있으며, 신청부터 인가 시까지 컨설팅 전 과정에 걸쳐 수요자 맞춤형으로 컨설팅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13~17년 회생컨설팅 지원실적

(단위: 개사)



**합계 318**

## 재도전기술개발(R&D)사업

R&D 성공과제 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술개발 완료 후 사업화 되지 못한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제품화 지원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정부 R&D 투자효율 개선 및 중소기업의 신규 매출을 창출시키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R&D 성공판정 기술 및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이며, 최종 선정기업에게는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2016년에는 KOSBIR\* 시행기관을 통하여 정부부처 R&D 성공판정 중소기업을 추천받아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대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화 추진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권장하는 제도



기술사업화 진단 446개사, 사업화 기획 80개사, 제품화 지원 48개사 2,290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품화 지원 후 신규매출 1,322백만 원을 창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상용화 R&D 31개사 5,607백만 원을 연계지원하였다.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주요성과**

구분	사업화 성공률*	신규매출발생액	신규매출/투입예산**	
2015년	지원 종료 후 1개월	25%	303백만 원	15.8%
	지원 종료 후 6개월	60%	2,781백만 원	144.6%
	지원 종료 후 12개월	70%	6,829백만 원	355.1%
2016년	지원 종료 후 1개월	27%	1,322백만 원	43.1%

\* 사업화 성공률 = 사업화 성공 업체 수 ÷ 사업화 지원 업체 수('15년 목표 20%, '16년 목표 25%)

\*\* 투입예산 : '15년 1,923백만 원, '16년 3,070백만 원

**정책중개**

2011년부터 중진공은 기관의 강점인 현장성을 살려, 지역본지부에서 발굴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정책중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발굴된 애로사항들을 정책과제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매월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정부에 정책개선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Small business), 옴부즈만(Ombudsman), 중진공(SBC)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규제애로 합동 간담회인 S.O.S Talk를 운영하여 2017년에 총 8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유관기관과의 협업 활동을 통해 중진공은 "정부정책과 중소기업 현장의 중개자"로서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간담회와 지역본지부에서 수집한 애로사항 312건을 정부에 직접 건의하여 산업분석을 통한 국가차원의 창업 MAP 작성 등 74건의 규제를 정부시책에 개선사항으로 반영하는 데 기여했다.

**정책중개 업무절차**

규제 발굴	규제 분류 및 건의	개선·시행	현황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객의 소리(VOC)</li> <li>현장 간담회</li> <li>금융애로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내외 중소기업 규제 검토 후 건의</li> <li>금융애로 해결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령 및 지침 개정</li> <li>반려 사유 회신</li> <li>민간금융기관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별 점검 실시</li> <li>우수사례 전파</li> </ul>
VOC, 현장수요발굴 등 다양한 채널 확보	대내외 중소기업 규제개선 업무 일원화	정책중개(정부, 공공기관 등) 및 내부지침 개선	규제개선 실적 점검 및 사례 전파

또한,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하였다. 그 결과 2017년에는 전년보다 24% 증가한 49건의 신규대출, 만기연장 등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해소하였다.

### 2017년도 주요 정책개선 사례

번호	건의명	건의내용
1	사용한 공업용수 하천 배수 시 사용료 부담완화	(현황) 하천수 사용 후 배출되는 배수 사용료 징수 관련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지자체 조례로 일정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 징수 (개선) 관련 조례를 삭제 추진 중으로 조례 개정 시 배수 사용료 부과기준이 삭제되어 기업 부담완화 기대
2	비트코인(가상화폐) 해외송금 서비스 인정제도 마련	(현황) 비트코인(가상화폐)는 현행 외국환거래법 상 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으로 비화의 취급업에 대한 규율 근거 및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지원 부여 필요 (개선) 비금융회사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소액 해외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
3	연구개발전담부서 세액공제 관련 연구실적양식 표준화	(현황) 연구개발전담부서 인력 인건비의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연구과제 수행실적 등이 인정되어야 하나 관련 양식 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세액공제 입증에 애로발생 (개선) '18년 법인세 신고부터는 '자기검증용 검토서'를 보다 상세화할 계획
4	VR게임 제공시설 칸막이 설치 기준안화	(현황)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 기준에 의거 1.3m를 초과하는 칸막이 설치 불가 (개선) VR게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5	시화 MTV단지 내 대중 교통 운행 확대	(현황) 안산의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내 대중교통 운행 노선이 부족하여 입주기업의 불편 초래 (개선) 입주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선 신설 및 주변노선 경로변경과 증차 추진

### 정보제공(간행물발간)

#### 『기업나라』 표지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영·기술 트렌드, 우수 성공사례, 중소기업 지원시책 등의 정보를 담은 월간 『기업나라』를 1979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매월 1일 발간되는 『기업나라』는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회비 납부방식의 정기구독 회원제로 운영된다. 연간 회원에게는 정가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무료로 배송하고, 주요 기사를 엄선해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정기구독 회원에 대한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시중 서점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판매를 진행했으며, 인터넷 웹진(nara.sbc.or.kr)을 통해 주요 기사를 제공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제고했다.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정보제공 확산을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포스트'에 『기업나라』 콘텐츠를 서비스함으로써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요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대중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한국ABC협회에 부수인증매체로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발행부수에 대한 검증을 받아 정기간행물로서의 대외 신뢰성을 높였다.

주요 기사를 최신 산업동향 및 이슈와 관련 중소기업의 사례를 심층 취재하는 <특집>, <기획>과 함께 4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People & Company>에서는 중소기업 CEO의 경영철학과 우수 제품의 탄생 과정을 소개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취재하고, <Global>에서는 현지 리포터를 통해 미국, 독일, 일본 등의 해외 경제이슈 및 기술 동향을 전달했다. 또한, <Trend & Solution>을 통해 경영·기술 관련 트렌드를 분석하고 중소기업 시책정보를 제공했으며 <Culture & Relax>의 문화 관련 기사로 교양정보 등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를 실었다.

보다 다양한 시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했다.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하는 신규 코너를 개설(중소기업 옴부즈만)하였으며, 여성 발명이 세상을 바꾼다(여성발명협회), 사회적기업을 말하다(사회적기업진흥원) 등 특집 및 기획 코너에 대한 자료수집과 취재업체 섭외를 협업하여 기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매월 「독자의 소리」 코너에서 관심 있게 본 기사내용과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독자 모니터링단 설문을 통해 『기업나라』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도, 신뢰도, 건의사항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5점 척도 기준 4.04점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특히 '성공사례'와 '시책정보', '특집·기획' 관련 기사에 대한 독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CEO 사람 이야기

명작



똑똑 스마트공장

문화아지트중

#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

## 02

고객만족도 제고  
및 경영효율성  
강화



- 90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 91 조직 경영효율성 강화

##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 고객 중심의 CS경영 추진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

2017년에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 지향(志向)적 고객만족 기반 구축', '고객관계관리 기반 중소기업 혁신성장 체계 구축'이라는 2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전략 추진을 위한 7개 실천 과제를 통해 전사적인 CS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현장 중심 고객만족 기반 구축”을 위하여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정책 참여 전 고객의 서비스 품질 및 개선 의견을 청취하여 CS수준을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맞춤형 현장 컨설팅과 함께 ‘취약점 보완 및 강점 강화’ 교육을 병행하여 고객만족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VOC를 현장부서와 즉시 공유하여 고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VOC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고객 중심 혁신성장 업무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 활용방안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 수집기준을 정의하고, 고객정보를 빅데이터화하여 통합 DB를 구축하였다. 고객정보통합시스템 “Customer 360”를 개발하고 전 직원 간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을 마련하여 직관적인 고객 지원체계를 도입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으로 정책목적과 고객가치를 고려한 지원 대상별 세분화를 추진하여 수요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는 고객 중심 서비스 체제로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2대 추진전략과 7개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PCSI 점수는 88.7점('16)에서 89.0점('17)으로 상승하였으며, 등급기준으로는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구분	2016년	2017년
PCSI	88.7	89.0
CSI	94.8	97.5

PCSI(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CSI(Customer Satisfaction Index) : 고객만족도

## 조직 경영효율성 강화

### 기관 신뢰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의 윤리경영 추진

「반부패·청렴 자율 실천문화 정착을 통한 ‘부패 제로(ZERO) 달성」을 2017년 중진공 윤리경영 목표로 정하고, ‘윤리경영시스템 보완’, ‘윤리경영 내재화 및 청렴문화 확산’, ‘모니터링 및 환류 강화’의 3대 추진전략과 8개 실천과제를 선정·추진하였다.

윤리 목표	반부패·청렴 자율 실천문화 정착을 통한 ‘부패 제로(ZERO) 달성’		
추진 전략	현장 중심 고객만족 기반 구축	윤리경영 내재화 및 청렴문화 확산	모니터링 및 환류 강화
실행 과제	제도 및 규정 정비 ① ‘SBC 청렴단’ 구성·운영 ② 윤리경영 마일리지 운영 ③ 현장 윤리활동지침 보완	공유, 학습, 내재화 ④ 윤리경영의 날 ⑤ 직무윤리 중심의 청렴교육 ⑥ 청렴네트워크 활용 협업	고객신뢰도 제고 ⑦ 윤리경영실천지수 전수조사 ⑧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향상 방안 수립·시행

먼저, 청렴정책 활성화를 위해 실무형 관리자로 구성된 ‘SBC 청렴단’을 신설하여 31개 부패방지과제를 이행하였으며, 반부패·청렴 우수활동 부서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전사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였다. 또한, 고객접점 현장부서 윤리활동지침 보완으로 신고제도 안내, 기관장 청렴서신, 반부패서약서 등 고객 대상의 청렴 체감활동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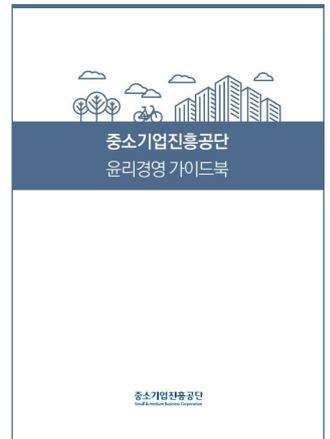
다음, 윤리경영 내재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윤리경영의 날(6월 2일)을 개최하여 임직원 청렴결의, 기관장 윤리메시지 전달, 청렴퀴즈대회, 청렴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고객신뢰도 제고 노력으로 윤리 취약요소 개선 및 실천 활동의 고객체감 효과가 높은 테마를 직군별로 분류한 부서별 윤리경영실천과제(1부서 1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지역이전 공공기관 중심의 경남 청렴클러스터(21개 기관)를 결성·운영하여 우수 반부패시책을 교류하고 합동 캠페인(4회) 실시 등 지역사회로 청렴문화를 확산하였다.

이외 기관 윤리규범 및 실천행동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윤리경영 통합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임직원 윤리의식 진단 및 기관의 윤리경영 실천활동에 대한 고객 체감도를 전수조사 후 현장부서에 전달·개선하는 모니터링 환류를 실시하였다.

윤리경영의 날(6.2, 청렴서약식)



윤리경영 통합 가이드북



#### 윤리경영 추진 성과

구분	17년
윤리경영실천지수	98.34
권익위 내부청렴도	2등급
권익위 외부청렴도	4등급

## 공유가치 창출형 사회공헌(CSV) 활동 수행

중진공은 사회공헌 추진 비전을 ‘중소기업, 국민, 중진공 임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감동하는 중진공感’으로 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7년 사회공헌 활동의 전략 방향을 ‘기관 업(業) 특성을 반영한 재능기부 다양화’ 및 ‘현장조직을 활용한 지역사회 기여’의 2대 영역으로 설정하고 전사적으로 추진하였다.



### 인식개선 활동



먼저, 기관 업(業) 연계형 재능기부 활동을 다양화하였다. 정책 소외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찾아가는 100인의 현장 서포터’ 지원으로 정책지원의 양극화를 해소하였으며, 청년 취·창업 정보 접근성 제고로 청년 일자리 지원에 앞장섰다. 아울러, 초등학생부터 특성화고 재학생 및 학부모까지 대상별 이슈에 맞춘 중소기업 인식개선 활동 추진으로 중소기업 취업 저변의 확대를 이끌어내었다.

### 장학금 지원



두 번째, 전국 현장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중소기업 현장 일손돕기,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지자체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추진하였고, 특성화고교생 대상 장학금 지원, 지역주민 초청 문화공연 개최, 복지시설 정기봉사 실시 등 나눔활동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사회공헌 대상별 추구가치와 기관의 핵심역량을 고려한 공유가치 창출형(CSV) 사회공헌 활동 추진으로 중진공은 사회공헌지수 A등급을 달성하는 등 중진공인, 수혜자,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핵심사업 수행역량 강화

### 신정부 중점 추진과제 수행을 위한 조직역량 집중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매칭을 위한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과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를 위한 해외직접판매 지원조직 신설 등 핵심사업의 인력 소요 필요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31명의 인력을 증원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① 일자리 중심 조직체계 구축, ② 핵심사업 조직 강화 및 지속가능한 조직 구축, ③ 고객맞춤 서비스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추진방향	조직개편 내용
일자리 중심 조직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정부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중심 사업 운영을 위한 조직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체계 개편) 일자리지원 성과 창출 극대화를 위한 부서 및 사업 간 통합·조정 등 일자리업무 총괄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인력기술본부장→(개편) 일자리지원본부장</li> </ul> </li> <li>• (컨트롤타워 구축) 기업인력지원처에 일자리기획팀을 신설하고, 일자리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분산된 일자리지원의 관리체계 일원화</li> <li>• (현장 실행력 강화) 지역본부 사업집행 전반을 담당하는 기업지원팀을 일자리지원팀으로 개편하여 일자리 중심 현장조직 구축</li> </ul> </li> </ul>
핵심사업 조직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해외직접판매 지원 강화를 위한 온라인수출 전문조직 신설 및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한 조직 확대·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직접판매 플랫폼 강화) 해외직접판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촉진 주도를 위한 해외직접판매사업처 신설</li> <li>•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촉진) 내수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마케팅 업무를 수출지원처에 통합하여 수출마케팅사업처로 확대·개편</li> </ul> </li> <li>■ 초기창업기업 투자 확대 및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연계 금융강화) 초기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성장공유형 평가 기능을 융합금융처로 일원화하여 투자업무 전반을 총괄·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권역별 경영지원처 분산 수행→(개편) 융합금융처 일괄 수행</li> </ul> </li> <li>• (리스크관리 전문화) 연대보증 폐지 및 고위험 기업지원 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경영지원처 내 채권회수 전담조직인 리스크관리센터 구축</li> </ul> </li> </ul>
고객맞춤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계적 고객관리를 위해 고객행복실을 CRM 전담부서로 개편</li> <li>■ 정책지원의 시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객접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지역 청년창업사관학교 대구, 광주, 부산경남 연수원에 추가 개소 (재창업) 재도전센터 현장조직 추가 개소('16년 7개→'17년 9개)</li> </ul> </li> </ul>

열린혁신이란?

기존의 혁신(맞춤형 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혁신,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정부혁신으로 구분하고, 시민과 함께 사회적가치 창출하는 혁신을 사회혁신으로 분류

## 열린혁신

새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 및 지역사회로부터 상향식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국민이 문제해결을 주도하는 열린혁신으로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중진공은 소통, 참여, 협력을 통한 국민(중소벤처기업) 주도의 서비스 혁신이라는 혁신 추진 방향 아래, 4대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전략 실행을 위한 14개 추진과제를 발굴하였다.

추진 전략 (4대) 및 추진 과제 (14개)	<b>사회혁신 생태계 조성</b>	<b>맞춤형 서비스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과 중소기업 스마트 일자리 매칭</li> <li>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확산 등 6개 과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ne-click 온라인 수출 도우미</li> <li>청년창업 성공을 위한 창업 전 단계 패키지 지원</li> </ul>
	<b>수평·창의적 혁신성과 창출</b>	<b>데이터 기반 구축·개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눈에 다 보는 고객정보 통합 DB</li> <li>민관협업을 HXD한 '수출 100만 불 파워 셀러' 양성 등 4개 과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컨텐츠 개방으로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중소기업 지식멘토</li> <li>중진공 빅데이터(해외바이어 DB 및 현지정보) 자산화 및 개방</li> </ul>

2017년도에 중진공은 열린혁신 추진 원년만큼 국민참여형 혁신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국민참여채널(국민참여단, 열린혁신자문위원회)을 신규 구축하여, 혁신과제 발굴, 실행 및 평가 등 혁신 전 단계에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혁신추진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을 강화하여, 혁신과제 실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해소 및 예산절감 등의 시너지를 창출하였으며, 열린혁신에 대한 전사적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워크숍,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직원들의 혁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2017년 공공기관 열린혁신 평가(행정안전부 주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사회혁신 과제인 '청년-중소기업 커플매니저를 통한 스마트 일자리 매칭'이 구인 중소기업과 특성화고·전문대 등의 청년구직자 간 맞춤 매칭을 통해 1,048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기관 열린혁신 대표 우수(BP)과제로 선정되었다.

2018년도에는 국민참여형 혁신추진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과제 실행 및 평가단계에서도 국민참여범위 및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며, 또한 국민참여채널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현재 50인 내외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을 100인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사람 중심 일자리 경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분야에 국민과 중소벤처기업이 성과를 체험할 수 있는 혁신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과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통한 국민경제 주역 육성을 목표로 이를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기관 전략목표에 따라 창업 생태계 활성화,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등을 위해 18명을 증원하였으며,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비정규직 전환 채용, 청년 고용확대, 사회형평적 채용 지속 등 조직 전략 연계 및 인적자원 진단을 통한 채용 방향을 수립하였다.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을 위해 직무중심(NCS)의 블라인드 채용절차를 도입하여 공정한 채용문화 확립으로 60명 청년일 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청년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청년 98.3%)과 여성(35.0%) 및 비수도권 인재(41.6%) 영입, 장애인 비율확대(3.2%), 장애인 청년인턴 채용(3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노사공감대 형성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기존 근로자 연대 및 노사협치를 바탕으로 대상인원을 100% 정규직 전환하였다.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전략실행력을 강화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전담반 등 임시조직을 적절히 활용하여 조직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였다.

장시간 근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제, PC-OFF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집중근무제를 실시 중에 있으며, 기존 근무시간선택형 탄력근무제와 더불어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 육아휴직 기간확대(3년), 자녀돌봄휴가 등을 신규 도입하여 직원 만족도 향상과 업무 생산성 제고에 노력하였다. 여성인재의 지속근무와 우수역량 발휘를 위해 장기 파견교육 기회 부여, 주요보직 배치, 육아휴직 및 단시간 근로 장려 등의 정책을 펼쳤다.

한편, 인사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승진 및 전보원칙을 사전 공지하였고, 채용 외주화와 외부위원 참여, 다면평가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였다. 인사관리 주요사항인 평가체계 시스템 전산화 구축을 통해 공정성 확보, 근무평정에 따른 공정한 승진, 전 직원 찾아가는 인사상담으로 직원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다.

2017년 연간 교육실적



신입사원 입문교육(봄꽃 트레킹)



5급 직원 리마인드 교육



## 전문인재 중점 육성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겸비한 중소기업의 Best Partner를 육성하는 것을 HRD 목표로 설정하고 성과창출을 위한 전문가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이 현업에서 성과와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원 및 조직의 니즈를 분석하여 연간 HRD 중점과제를 도출하여 운영하였으며, 자가진단 및 상사진단 2단계 역량진단시스템을 통하여 개인별 역량을 분석하고 역량 기반의 자기주도형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먼저, 총 교육시간은 업무량 증가에 따른 교육 참가 애로 해소를 위해 직급별 이수학점을 하향 조정하여 6,588시간 감소하였다.

분야별로는 직무역량분야의 경우 목표학점 하향 조정에 따라 8,698시간 감소하였으나, 수출마케팅·기획분야 과정 확대, 기업인력지원분야 교육 신설, 전문기관 위탁교육 확대 및 역량에 맞는 단계별 학습 지원으로 직무교육 현업적용도는 4.31점으로 0.06점 증가하였다. 리더십 역량 분야는 관리자급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부서장 역량강화교육, 실무자급은 3·4급 승진자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였고, 신입 직원 리마인드 교육, 여성리더십을 실시하여 총 1,013시간 증가하였다.

특히 부서장 역량강화교육은 인력지원 분야 및 벤처창업·투자 분야 전문가 강의 등을 통해 전문 지식과 정부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최신 정보 습득을 지원하였다. 공통역량 분야는 지속가치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정보보안교육, S/W 저작권 교육 등 법정필수교육 위주로 운영하였으며 사·내외 외국어교육 지원 확대로 1,097시간 증가하였다.

진주 이전, 임금피크제 대상자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와 직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내 영어 회화 교육, 창업지도사 자격증 교육, 협력직원 고객응대 교육, 여성리더십 특강을 신설하여 직원들의 교육 참가의 폭을 확대하였다.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체계와 중진공 리더로서의 성장 지원을 위해 'CDP 기반 직무유형별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7개 직무유형별 직무교육체계 수립과 계층별 핵심역량을 도출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는 '18년 임직원 교육계획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신입직원 교육은 2016년에 이어 NCS 기반으로 운영하였으며 신입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입문 교육] → [팔로우업 교육] → [멘토링] 의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입문교육 축소에 따른 보완으로 직무교육 중심의 집합교육, 금융연수원 교육, 독서통신교육을 실시하여 신입직원의 조기전력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15~'16년 입사 신입직원 대상 리마인드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조직몰입도 및 직원 간 팀워크 향상에 기여하였다.

## 성과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조직목표와 개인목표의 조화

공단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바탕으로 선정된 24개 핵심 KPI를 부서경영평가 및 개인성과 KPI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성과관리의 체계를 확립하였고, 지표선정 및 평가 전 과정에 직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타당성 높은 평가지표들을 발굴하고 성과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만족도를 개선하였다.

부서평가 지표공모제를 실시하여, 우수지표 6개에 대해 부서포상을 실시하고, 직무와의 연계성이 높은 23개의 지표를 지표Pool로 반영하였다. 지표 타당성 검증에 P-SMART 기준을 도입하여 각 지표의 공공성 반영 정도를 평가하였고,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회적 가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신규로 개발하였다.

실질적인 협업성과 창출을 위해 부서별 협업 대상과 목적을 사전에 설정하고 연간 실행성과를 평가받는 구조로 개선하였으며, 부서 간 '협업만족도 평가'를 신설하여 부서 간 협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지역본부 평가직군을 '권역별 분류'에서 '규모별 분류'로 개선하여 규모에 따라 발생하던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전년도까지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서부권, 동부권으로 이루어지는 평가군 분류를 규모와 예산에 따라 I, II, III군으로 분류함으로써 사전검토에서 나타난 '예산과 인력이 클수록 평가에 유리'한 현상을 해소하였다.

본사 기획관리 직군에 대한 평가를 기능별(팀별)평가로 전환하여 '우선개선대상'과 '업무량 및 성과에 따른 보상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기존 7개 부서단위 평가직군을 14개 팀 단위로 평가함으로써 기존 부서단위 평가결과와 기능별 성과와의 차이를 해소하였다.

부서평가의 객관성 향상을 위해 부서평가 위원의 공모제를 도입하였으며, 평가 전까지 평가단 명단 및 평가위원별 평가 부서를 비공개로 진행하여 공정성을 확보 하였으며, 내외부 평가단을 대상으로 사업과 부서별 업무, 평가왜곡 방지, 보고서 작성법 등의 교육을 강화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성과평가의 지표개발을 직원 참여형으로 진행하여 총 604개의 개인성과 KPI를 개발하고,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합의를 통해 목표의 설정과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제도에 대한 합리성과 직원 수용도를 최대한 고려하였다. 연 4회의 코칭실시를 통해 우수사항과 보완사항을 파악하여 개인성과 평가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입지를 구축하였다. 개인성과평가에 대한 AUDIT 실시로 평가과정에서 오는 오류를 최대한 방지하고, 개인별 성과평가등급을 완전공개하고 있다.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보장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방식을 선택하여 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였다.

## 소통과 공감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구축

2017년 중진공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바람(Smile), 휴식(Break), 소통(Communication)을 3대 전략으로 수립하였다. 우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진공 4대 불편문화(회식, 퇴근, 휴가, 주말근무)를 선정하여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매주 수요일을 PC-OFF데일로 지정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직원의 가족사랑과 애사심 고취를 위해 다양한 기념일을 축하하는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문화교실(원데이 클래스), 직원 자녀의 그림 및 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소통과 공감을 통한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조직문화



두 번째로, 격무에 지친 임직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먼저, 직원들이 편하고 쉽게 직장 내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Happy SBC라는 내부 상담창구를 신설하였고, 마음건강교육(힐링캠프)과 전문가 상담(EAP)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직무 피로감 해소 및 스트레스 완화 등 마인드케어 문화를 정착하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진공은 수평적 문화조성을 통한 소통 강화를 위해 CEO-직원 간 직접 소통 채널인 SBC 필통(feel通)을 운영하여 사업, 인사, 조직문화 등 조직 전반에 대한 직원의견을 CEO가 직접 검토하였다. 또한, 부서 간, 직급 간 화합과 동료애 발휘를 위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였고, 직원들 간 수평·수직적 소통과 친목교류를 위해 동기회 워크숍, 호프데이 등을 운영하였다. 그 밖에도 신상일&한혜주 초청 '제4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클래식콘서트'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제4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콘서트



이 밖에도 신규 사가(社歌)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중진공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애사심 및 일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7년 조직문화지수(리더십, 조직력, 소통, 신뢰 등 4개 분야에 대한 중진공 조직문화 수준을 측정하는 고유 진단지표)는 4.1점으로 역대 최고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03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 방향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①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지원, ②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화 및 마케팅 지원, ③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CEO 육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정부정책을 최일선 현장에서 수행하는 원스톱 종합지원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에게는 희망을, 벤처기업에게는 날개를,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꿈을 주는 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 1) 정책자금 융자

### 가. 창업지원 확대 및 혁신성장 촉진

(창업지원 확대)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예산(일반창업·청년전용창업자금·투융자복합금융)을 확대('17년 1.8조 원→'18년 2.0조 원)한다. 또한, 정부 창업사업(투자·R&D·B) 참여기업의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창업사업 연계 전용자금(1,000억 원)을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이용 경험이 없는 첫걸음 기업에 대해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단계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촉진)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자금별 지원 목표제를 운용(자금별 20% 내외, 1조 원, '18년 예산대비 27.5%)한다. 또한, 기업 제조현장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을 신설(3,300억 원)한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자금 대출기간을 확대(8년→10년)하고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16.7월)'에 발맞추어 서비스업종 지원 비중을 '20년까지 20%로 확대한다.

### 나. 중소기업 안전판 기능 강화

(재도전 지원 확대) 정직한 재창업 실패자의 융자상환금 조정을 통해 재도전 활성화를 도모하여 실패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재창업자금 융자상환조정형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전환 계획 수립 지원, 전용 R&D 지원, 멘토링 지원 등의 사업전환 연계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경제·일자리 안정 지원) 공정거래 촉진 및 약속어음 감축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현금결제 전환에 필요한 구매자금을 지원(약속어음 감축 지원)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수령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200억 원→350억 원)한다.

(위기대응 체계 구축) 재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평가항목을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평가모형'을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 다. 수요자 중심의 제도 혁신 추진

(정책자금 제도 혁신) 도전적 창업여건 조성 및 재도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존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하여 전면 폐지한다. 또한,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상환하도록 허용하여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기업의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고객편의성 중심 업무시스템 개선) 정책자금신청 시에 온라인 전자서명('17년 26%→'18년 50%)을 확대하고 제출서류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발급을 확대하여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한, 고객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상시 신청시스템을 통한 '사전상담예약제'를 확대('17년 59%→'18년 80%)한다.

#### 연대보증 면제 진행경과



## 2)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

### 가. 수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연계지원

지역본·지부 및 정책지원 DB정보 등을 활용하여 수출유망 기업·상품을 발굴하고 수출성장단계별로 정책연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나. 해외직접판매 지원체계 구축

청년 취업희망자·경력단절여성·소규모 무역상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판매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수출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원클릭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해외직접판매 쇼핑몰을 활용하여 해외직접판매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대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 다. 글로벌BI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기능 확대

현지 중소기업 및 글로벌 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진출 국가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기존] 공간제공·행정서비스→[추가] 마케팅·법률자문·바이어알선)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인큐베이팅 중심에서 해외창업 및 기술교류 등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수요에 대응한 지원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 3)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CEO 육성

#### 가.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인력 매칭·양성

중소기업 인식개선에서 인력유입·양성 및 장기 재직 단계까지 기업인력애로센터 중심의 연계지원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맞춤 인력양성 지원학교[기술사관(특성화고+대학) 및 산학맞춤(대학+중소기업)]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 기술·기능인력의 중소기업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 나. 내일채움공제 활성화로 기업-근로자 간 상생 견인

신규 은행판매 추진 및 기존 협회·단체 판매 활성화 등의 공제상품 외부 위탁판매 확대를 가입창구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지자체 협업 모델 및 공기업·대기업과의 동반성장 사례 공유를 통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 자산형성 및 근로시간 나누기 등의 신규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여 청년공제 최초 만기 도래 시 내일채움공제로 연계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세제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청년 CEO 양성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스마트 팩토리 연수 등의 전문 코칭 프로그램에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진공 창업 프로그램과 지자체 인프라를 결합한 청년창업사관학교 협업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창업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엑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의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 창업자 교육 및 투자유치 등의 성장 사다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 04

## 부록

- 104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출자회사 현황
- 107 2017년 발간 간행물
- 108 2017년 주요 행사
- 109 조직도
- 110 운영위원 및 임원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출자회사 현황

###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주)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의 설립)」에 의거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1일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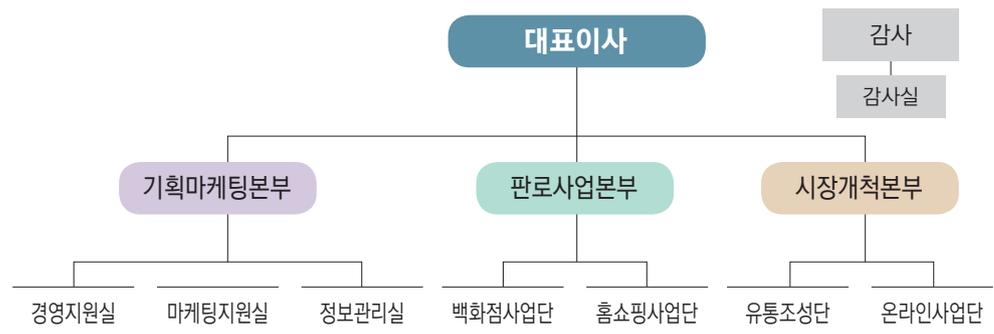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1999년 12월 3일 목동판매장(행복한세상백화점)을 개점하였다. 2012년 9월에 '행복한백화점'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4층에 중소기업전용판매장인 'HIT500 PLAZA'으로 확장 오픈하여 창업벤처제품, HIT500제품, 청년창업사관학교 제품 등의 초기 테스트 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에는 창조혁신제품의 '유통 마중물' 역할의 확대를 위해 4층 중소기업전용판매장을 '아임쇼핑'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우수 중소기업제품 사용을 더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전용판매장을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였고, 판매성과 제고를 위해 면세점 위주의 매장 개편도 실시하는 등 '17년에 총 11개의 중소기업전용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판로채널 확대를 위해 2001년부터 TV홈쇼핑사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 공급하고 2012년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주)홈앤쇼핑 설립 시 주요주주(지분 15%)로도 참여하고 있다. 2015년 3월에는 중소기업제품·농산물 판로확대, 창의·혁신상품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 해소, 불공정거래 개선 등을 위해 농협경제지주와 수협중앙회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주)공영홈쇼핑을 설립하고 최대주주(지분 50%)로서 중소기업 제품의 방송판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 밖에도 마케팅전략수립, 매체홍보, 제품개선, 브랜드개발지원 등 마케팅역량강화사업과 통합 유통플랫폼 구축 운영 및 공동A/S지원 등 중소기업의 판로활성화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조직도



## 한국벤처투자(주)

한국벤처투자(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촉진법」에 의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관리·운영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舊 다산벤처)으로서 2005년 6월 29일 개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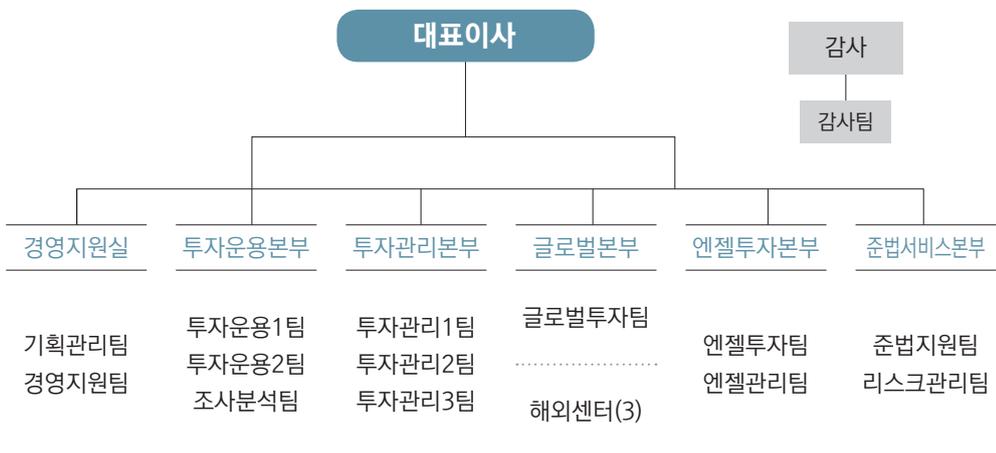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은 2017년 12월 말 기준 3조 4,182억 원이 조성(중기부 포함 8개 부처 참여)되었고, 이를 모태조합에 출자하여, 누적 총 584개, 18조 5,39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운영 중으로 출자금 대비 5.4배의 승수효과를 달성하였다.

### 주요 업무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에 대한 출자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주)는 해외 벤처투자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KVIC Global GP Summit'을 개최하고, 해외VC 외자유치펀드를 확대 조성하였다. 또한, GP(General Partner) 및 LP(Limited Partner) 간담회 및 자조합 이슈별 사례연구회를 통한 사후관리 절차 개선으로 시장친화적인 자펀드 사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개편 및 준법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VC/PE Monthly(벤처캐피탈 전문 월간지) 발간,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벤처캐피탈산업 관계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 조직도 : 6본부 14팀(3개 해외사무소)



## (주)SBC인증원

ISO(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9000/14000/22000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품질경영체제(9001), 환경경영체제(14001), 식품안전경영체제(22000) 규격, 부패방지경영체제(37001) 규격

TL9000(Telecommunication Leadership 9000) :

정보통신업계의 품질보증 규격

TS16949(Technical Specification 16949) :

자동차 품질분야 경영시스템

(주)SBC인증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와 산업자원부의 중소기업 품질경영체제 인증 관련 사업추진 위촉에 따라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5년 7월 28일 중진공 ISO9000인증기관으로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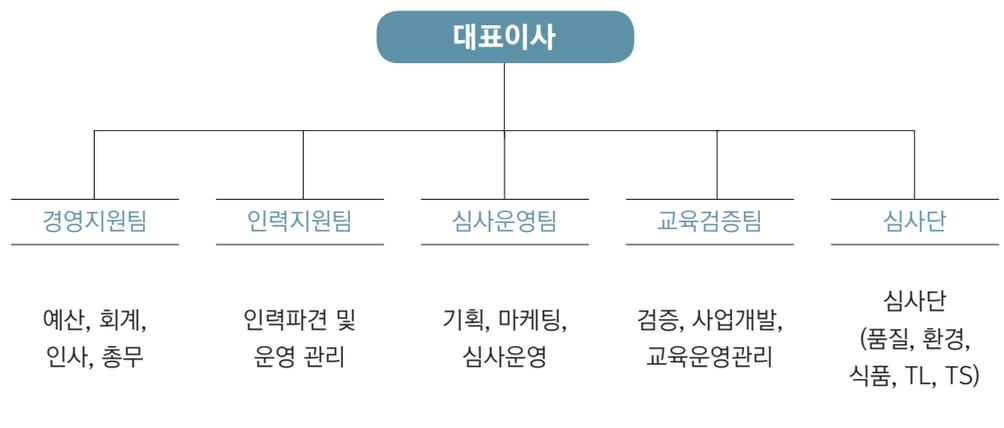
인증원은ISO-9001(품질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TL-9000(정보통신분야품질경영시스템), K-OHSMS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의 인증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 SBC인증원 사업실적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인증 건수	매출액	당기순이익
'15	860	5,622	138
'16	863	5,729	133
'17	833	5,986	158

### SBC인증원 조직도



## 2017년 발간 간행물

취업의 재발견 꿈과 꿈을 잇다(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우수사례집)	'17.02
뿌리 깊은 나무(기술사관 육성사업 우수사례집)	'17.02
배움으로 커리어에 날개를 달다(중소기업 계약학과 우수사례집)	'17.02
청년, 창업에 미치다 5	'17.02
2016년 기업진단 우수사례집	'17.03
인재를 아끼는 기업 나눔을 아끼지 않는 기업(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우수사례집)	'17.08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성공사례집	'17.12
2016년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성공사례집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글로벌 진출 성공 스토리)	'17.12
사업전환에 답이 있다(중소기업 사업전환·무역조정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1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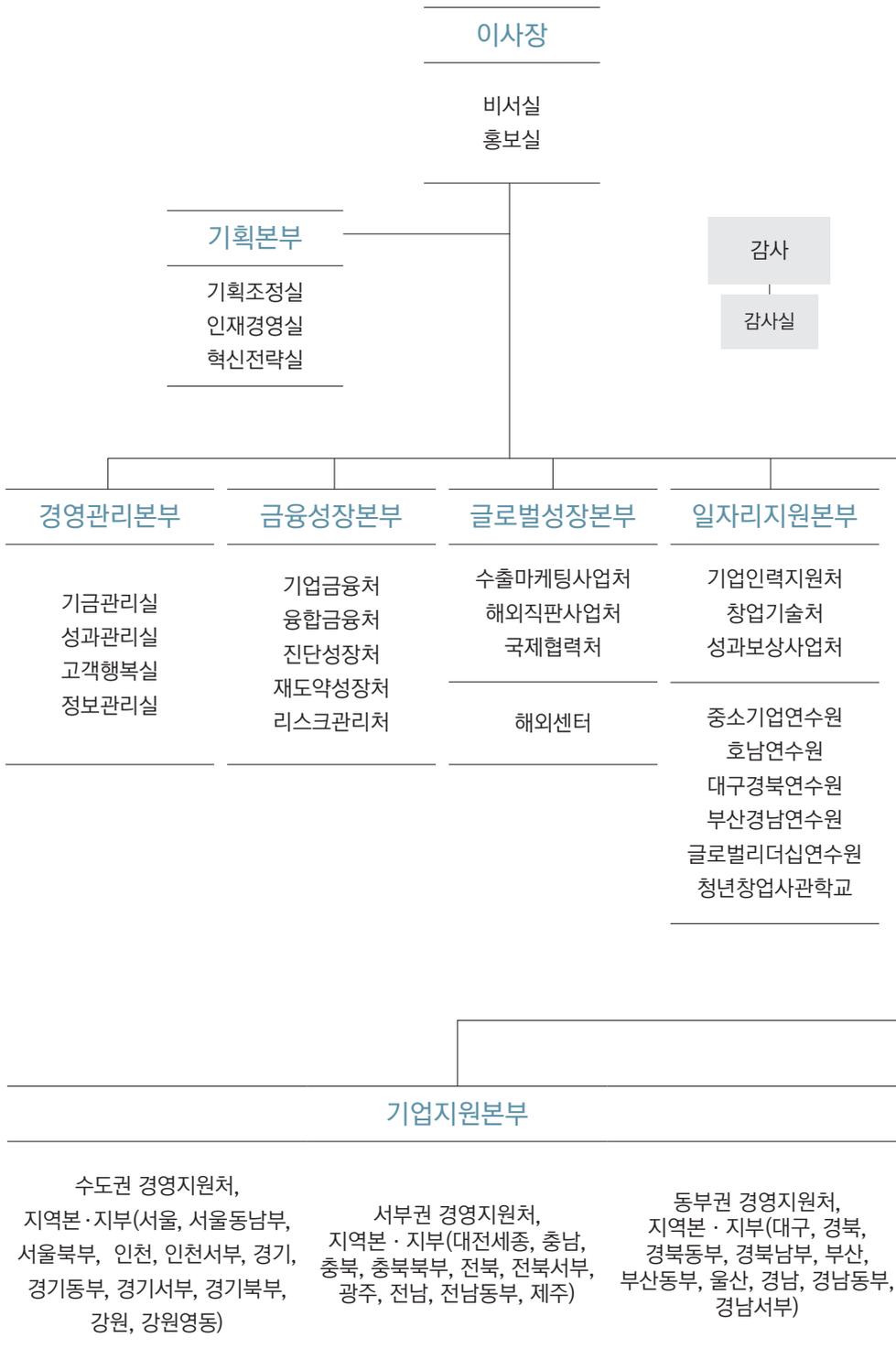
## 2017년 주요 행사

1월	2일	2017년 시무식
	23일	글로벌 CEO 신년인사회
	24일	설날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25일	창립 38주년 기념식
2월	9일	제4기 중진공感 장학금 수여식
	20일	청년창업사관학교 제6기 졸업식
	22일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공동 개최
	27일	임원 및 부서장 핵심과제 협약식
3월	6일	기업인력애로센터 개소
	29일	청년창업사관학교 제7기 입교식
4월	13일	2017년 동반성장 대토론회 기조연설
	14일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초청 간담회
5월	18일	중진공-신한은행 청년 취업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30일	중진공-이마트 노브랜드(No Brand)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 조성 업무협약 체결
6월	1일	중진공-말레이시아 중소기업공사 업무협약 체결
	2일	2017년 윤리경영의 날
	7일	중진공-롯데홈쇼핑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9일	중진공-강원도 노·사·정 협력 방식의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업무협약 체결
	30일	중진공-DHL코리아 중소기업 해외직접판매 지원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7월	13일	중진공-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 관련 유망 중소기업 발굴과 연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9일	카자흐스탄 중소기업공사 중소기업 지원정책(기업진단기법) 수출협약 체결
8월	21일	2017년 을지연습
	25일	중진공-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중소기업 애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30일	2017년 글로벌 유통망 소싱페어 개최식
9월	12일	추석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10월	26일	국정감사 수감
11월	3일	중기부, 중진공, 금감원, 은행연합회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및 구조조정 지원 업무협약 체결
	24일	중진공-천안시 총청연수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
12월	1일	재도전의 날 개최
	13일	중소기업지원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18일	으뜸중기제품 시상식
	21일	중소기업 성과공유확산 컨퍼런스 개최
	29일	송년 다과회

# 조직도

(조직) 6본부, 10실, 14처, 31지역본·지부, 5연수원, 1학교, 1센터

(2018년 3월 말 기준)



## 운영위원 및 임원

### 운영위원

(2018년 3월 말 기준)

구분	성명	소속기관	직위
위원장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연직	안도걸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위촉직	이용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문위원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	학회장
	윤소라	(사)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이상철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상근부회장
	권장섭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홍지승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장
	길재욱	한양대학교	교수

\* '18.3월 말 기준, 당연직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은 공석

### 임원

(2018년 3월 말 기준)

직위	직무	성명
이사장	중진공 업무 총괄	이상직
감사	중진공의 업무 및 회계 감사	박정성
기획본부장 겸 금융성장본부장 겸 경영관리본부장	예산, 조직, 인사, 경영전략, 조직혁신 등과 관련된 업무 기업진단, 정책자금 융자, 리스크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 기금관리, 조직문화, 평가, 정보보안 등과 관련된 업무	김현태
글로벌성장본부장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확대 및 마케팅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	이용승
일자리지원본부장 겸 기업지원본부장	연수, 성과보상기금, 창업·기술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 지역본·지부 운영, 사업집행 관리·조정·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	정진수
상임이사	중진공 경영 의사결정 참여 및 자문 등의 업무	이한철
상임이사	중진공 경영 의사결정 참여 및 자문 등의 업무	조내권
비상임이사	중진공 경영 의사결정 참여, 경영활동 감시 및 자문 등의 업무	오석송
비상임이사	"	한무경
비상임이사	"	허미연
비상임이사	"	정인태
비상임이사	"	조영삼
비상임이사	"	최우영
비상임이사	"	백병성
비상임이사	"	이순배

##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차보고서

발행일 : 2018년 6월

기획 및 편집 : 중소기업진흥공단 혁신전략실

발행인 : 이상직

발행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2017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ANNUAL REPORT